

# 소학생

國立圖書館

★ 56호 ★



아협 발행

133

4월치

# 넷물파나무

尹 后 重 磊 曲  
尹 克 荣 曲

노래동무회 악보

넷물 아 밑으로밑으로 흐르는 넷물 아  
너는 바다 구경이 하고 싶으-나  
나무 아 위로-위로- 자라-는  
나무 아 너는 하늘 구경이  
하고 싶으-나  
넷물 아 나무 아



정현웅·그림

# 소학생

1948년 4월 1일 발행

56 호 ★ 4 월 치

## 차례

- ★동 물 천 구 경-유요성(9)
- ★노래를 알부르르연-함인현(26)
- ★적자대기-문두익장-황수성(30)
- ★우리 알 보르 왔기.....(31)
- ★정신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나?.....(36)

### 협상 작문과 등요 모집 (41)

- 동화-나뭇잎과보리새-김요성(4)
- 소년-박아란의 비밀-유국성(12)
- 소년-소년 장 속 지 박대현(22)
- 동요-김 집 는 나 기-김상옥(8)
- 동요-미 주 남 제-김태양(24)
- 대기-장진과 박대기-김 본(20)
- 대기-소년장과순정현-이성모(24)

- 세악보.....윤석주·윤국영(2)
- 자전·부여 구경-이후덕(22)
- 그림대기·무자춘-김수원(18)
- ★우리 학교 작품★
- 시골 수송 학교지.....(37)

- 조선 광부(9) 비장모라라(27)
- 별대를 먹고 주는 물.....(7)
- 이상한 나무들.....(9)
- 공들의 수명.....(10)
- 과다는 나이가 몇살?... (15)
- 그림 속담...(37) 세소식...(25)
- 은모와 함남지.....(21)

- 과학 만화.....반복이(11)
- 만화·유동미.....이영준(44)
- 백작자 아힘 상타기 발표...(26)
- 어린 잠 짐승.....(25)
- 가르 세르 보는 책이.....(40)
- 말말박자...(40) 희희박자...(40)
- 작 품 이...(27) 자자자자...(48)
- 소학생 구락부.....(43)
- 만화요 나시.....(42)

### ★그림 그리신 분★

- 정 현승·김 용환·김 처환
- 김 기장·조 병덕·최 수성
- 김장·조 병덕 :

김 규덕·그림



동 화

# 나뭇잎과 보리씨

김 요 섭

언제나 조용한 언뜻이 양  
겉스레 앉아 있고, 그 들레를  
땡 돌아 여러 가지 나무들이  
뚝뚝히 들어 서 있는 산 속.  
다람쥐 두 양주 살고 이따  
금 비명을 지나 산새가 와서  
노래하다 가끔 하는 의 좋게  
살아 가는 산 속일  
니다.

늦은 가을 날, 하루  
는 사나운 바람이 휘  
일 휘일 소리 치고  
휘 돌아쳐 왔습니다.  
어디서 온 바람인  
지, 어떻게 되어 온  
바람인지, 산 속에는  
아무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어제도 사  
나운지, 바람이 어제도 무서  
운지, 산 속 나뭇잎들은 나뭇  
가지에서 파들파들 떨어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 우리는 어저나?”

“어저기는 어찌, 바람이 부  
는대로 살지.”

“이 바람이 언제나 멈추려  
는지?”

“우리는 어떻게 될까?”

서로서로 근심스러운 얼굴  
로 나뭇가지에서 쳐다보며 소  
근거리었습니다.

또 한 파의 바람이 무서운  
호령을 치며 물려 왔습니다.  
산 속은 또 한 번 바람 속  
에 휘감기어 나뭇가지에 이  
물 악물고 매달린 나뭇잎들  
도 기진맥진하여, 한 잎 두 잎  
나뭇가지에서 힘 없이 손을



놓고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  
다.

바람은 갈줄도 모르고 자꾸  
만 자꾸만 불어 휘 돌아칩니  
다.

떨어진 나뭇잎도 아직까지  
겨우 매달려 있는 나뭇잎들  
도 무서움에 질린 얼굴로,

“바람님! 바람님! 그만 용  
서하세요. 네, 바람님이 하  
라는대로 다 할테니, 아니  
이렇게 팔랑팔랑 춤도 출려  
니 그만 용서하세요, 네.”

이렇게 애절하였습니다.  
나뭇잎들은 바람한테 피서  
는 것도 없으면서 자꾸만 용  
서해 달라고만 애절하였습니  
다.

“바람님! 이것 보십시오. 우  
리는 바람님 편이 아닙니까  
? 이렇게 바람님이 좋아하  
시는 팔랑춤 파들춤 추지  
않습니까? 바람님이 가파  
는 데는 물이고 불이고 천  
티인을 못가시오, 아무데고  
가지요.”

하고 나뭇잎들은 가지에서 파  
들춤 팔랑춤 추다가 푹푹 땅  
위에 내리어 바람이 부는대  
로 같이 춤추며 따라 다니었  
습니다.

바람이 이리 물리  
면 이쪽으로 나뭇잎  
들도 와-와- 소리  
치고 물리고, 바람이  
저리로 물리 가면  
서로 앞을 다투면서  
나뭇잎들은 바람이  
부는대로 같이 춤  
아라고 춤추면서 다  
니었습니다.

온종일 어디서 온  
바람인지 어디로 가는 바람  
인지 아무도 모르는 바람은,  
산을 들을 지물길을 쓰다니  
며 못살지 못살지 굴었습니다.

나뭇잎들도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바람을 따라 추고 싶  
지도 않은 춤을 추면서 같이  
쓰다니었습니다.

어느새 밤이 되었습니다.  
이슬이 내리는 밤이 되었습  
니다.

바람은 숲 속으로 잠자리

가 버리고, 바람 없는 산과 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나뭇잎들은 바람과 같이 물러 다니다가, 어느새 엄마 있고 아늑이 있는 정든 산속에서도 멀리 떨어진 산길을 지나 발두룩에 모여 앉았습니다.

바삭 바삭과 바사삭 고달픈 다리를 쉬면서 인제는 돌아갈 수 없는 언뜻 있는 산속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오늘은 바람의 산새가 놀러 왔다 우리가 없으니깐 그냥 활활히 돌아 갔겠지……”

“아! 우리는 언제나 그 그리운 산속에 돌아 갈까?”

“산새가 우는……”

“별이 밤마다 내려 오는 조그만 언뜻이 있는……”

“다람쥐 두 양주가 사는……”

“아! 아름다운 그 산속……”

먼 하늘에 떠 오르는 둥근 달을 보니 더욱 서러움이 목마쳐 나뭇잎들은 바삭 바삭과 바사삭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보시오, 어보시오.”

어디선가 이층 속에서 나뭇잎들을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뭇잎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난 이 발두룩에서 봄을 기다리고 있는 보리씨오만, 당신같은 어디로 가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슬피울 하오?”

“우리는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오,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같이 숨 추며 물러다

## 등요 집 없는 나비

김 상 옥

나비 나비  
노랑나비  
집 없는 나비

노랑 수염  
오그리고  
잠이 들어도

노랑날개  
비가 오면  
어룡지지요

비가 오면  
노랑나비  
품을 깨고요

나리 나비  
노랑나비  
집이 없어도

비가 오면  
오동잎을  
찾아 간대요

꽃 속에서  
달디단  
꿀을 먹고요

오동나무  
파랑 우산  
오동잎 우산

꽃 속에서  
교오박  
잠이 들어요

가랑비  
소나기도  
절지 않아요



(그림·정 현웅)

니오.”  
다른 나뭇잎 하나가 이렇  
게 힘 없이 대답했습니다.

“엇기, 어디로 가는 줄도 모  
르고 또 가고 싶어도 많은  
것을 바람이 부는대로 물

며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담!”  
나뭇잎은 울상이 되어 말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은 너무 힘  
세고 우리는 약하고……”  
또 하나의 나뭇잎이 맞장  
구 치며

“그렇지, 우리는 약한 몸이  
라 바람이 부는대로 살아  
가야지 할 수 있오.”

“그런 약한 소리는 듣기 싫  
소.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이곳에서 몸이 울 때까지  
살아 봅시다.”

보리씨는 몸을 기다리며 갈  
이 팔뚝에서 살자고 권하였  
으나, 나뭇잎들은 머리를 살  
때살때 흔들면서,

“안될 말이오. 그 바람을 어  
찌 당해 내는 수가 있오.”  
슬픈듯 머리들 그만 숙으  
리고 바삭 바삭 마사삭 마사삭  
호느껴 울었습니다.

숲 속에서 하룻밤을 끈히  
자고 나온 바람은, 이튿날 아  
침 발뚝의 나뭇잎을 또 물  
고 휘잉 휘잉 사라져 버렸  
습니다.

산을 넘어 바람을 구르고  
줄기를 달리고 바람과 함께  
물러 퇴매달 나뭇잎의 더러는  
깃피런 강물에 떨어지고 연  
못에 빠지고 하여 물귀신 되  
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남은 나뭇잎들은 바  
람과 함께 들을 산을 쓰다니  
었습니다.

우와—우와—소리 치면서,  
산에도 들에도 눈 오는 겨  
울이 되었습니다.

불쌍하게도 나뭇잎들은 바  
람과 같이 물러 다니다 먼 타  
향 깊은 골짜기에서 눈에 파  
묻혀 어름에 풍풍 얼어 붙어  
버렸습니다. 오늘도 피붓는  
눈 위로 바람은 소리 치고 쓰  
다닙니다.

눈보라를 하얗게 바람은 일  
어 세우며 심술을 부리었습  
니다.

그렇지만 눈 밑에 흙 속 보  
리씨는, 꼼짝 안하고 눈을 꼬  
속 감고 이제 울 몸을 손 꼭

아 기다립니다.

“바람아 불어라 마음껏 불  
어라.”

보리씨는 흙 속에서 바람  
소리를 들으며 짐 있지 부  
졌습니다.

바람 소리는 앵—앵— 눈  
아 오르는데, 보리씨는 마  
끔 무섭지 않습니다.

봄, 봄, 봄, 봄은 지금쯤 어  
니만큼 왔을까? 보리씨는 사  
런 손을 호—호— 물려 이런  
생각 판입니다. (끝)

### 발명 이야기

## 청진기(聽診器)는 어떻게 발명되었나?

박 동 식

우리들은 몸이 불편하고 병  
이 났을 때에는 병원에 가서  
의사(醫師)에게 진찰(診察)  
을 받습니다. 그 때 제일 먼  
저 의사가 꺼내는 것이 체온  
기(體溫器)와 그리고 두 개  
의 기다란 고무줄이 달린 청  
진기(聽診器)입니다. 병자(病  
者) 몸에 무슨 변화가 있나  
알기 위하여 가슴이나 등에  
대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 우리들이 밥을 먹지 않으  
면 죽는 것과 같이, 의사에게  
는 이 청진기가 생명(生命)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  
요한 청진기가 발명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고 겨우 지금  
부터 한 134년 전, 즉 서기 18  
14년에 블란서 사람이 발명하  
였고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 1814년이던, 블란서가

전쟁에 저서, 나포레옹이라는  
영웅이 엘바라는 섬으로 구  
양을 가던 때입니다. 이 때  
블란서에 루우테·레에네크  
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전  
쟁이 막 끝난 때라, 나포레옹  
밑에서 싸우던 군사들은 수  
만 명 병이 나고 부상(負傷)  
을 당하여 파라에 있는 레에  
에 병원에 많은 군사가 입원  
하고 있었습니다. 레에네크의  
사는, 이 병원에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레에네크 의사는  
바쁜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  
으로 돌아가는 도중, 병원 근  
처 빈 터에서 어떤이들이 신  
이소오 놀이를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을 물끄럼이 바라보  
고 있던 중, 한 소년이 신  
이소오 한쪽 뒷판 위에 다 가만

리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하야 이상스럽다 생각하며 보고 있으려니까, 다른 또 하나의 소년은 다른 쪽으로 와서 널판 위를 못으로 살금살금 다가 시작하였습니다.

“야 잘 들린다.”

소년들은 서로 번갈아 들으며 무엇인지 아주 기뻐합니다. 헤에네크 의사는 하도 이상하여, 그 이유를 물었더니, 소년들의 대답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안들릴 정도로 작게 가만가만 널판 위를 굽어도, 저쪽에서는 아주 그 소리가 잘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응, 그래! 소리란 공기를 통할뿐더러 나뭇조각에도 통하는 것이로구나.” 이같이 헤에네크 의사는 깨닫고 아주 신기하고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널판 한쪽에서 일어난 진동(振動)이 다른쪽으로 통해간다. 그렇다면 나무로 통을 만들고 한쪽을 병자 가슴에 대고 다른 한쪽을 내 귀에 대면, 가슴 속의 심장(心臟)이나 폐(肺)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들릴 것이다.”

헤에네크 의사는 하도 기뻐서 가르쳐 준 소년의 이름을 붙을 것도 잊어버리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 당장 그 자리에서 나뭇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즉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청진기의 시초인 것입니다. 그 후, 헤에네크 의사는 언젠가 이 기계(器械)를 병자 가슴에 대고 병에 따라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평에는 이런 소리가 난다고, 확실하게 들어서 분별(分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헤에네크 의사가 처음 발명하였을 때 같은 단 한 개의 나뭇통이 아니고, 상아(象牙……코끼리의 어금)로 만든 통에다 두 개의 고무줄을 달고, 그 고무줄 끝에 귀에다 박는 청취기(聽取器)라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진기는 여러 분과 같은 어린이들이 노는 것을 보고 헤에네크 의사가 발명한 것이지만, 또 한가지 의사가 진찰할 때, 가슴이나 등을 푹푹 두드리 보고 나뭇통을 조사하는 방법은 누가 무엇을 보고 발명했을까요? 여러 분 중에는 마치 장난하는 것과 같이, 이쪽 저쪽 서너 번씩 푹푹 두드리는 것을 보고, “그까짓 것을 발명은 다 뭐야”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제실출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청진기로 소리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진법(打診法)이라 하여 의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오스트리아의 테오폴드라는 의사가 자기 소년시대의 조그만 하나의 기억(記憶)을 생각하고 발명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오스트리아(구라파에 있습니다.) 그랏쓰라는 시골에 마흔 착한 주막집이 있는데, 이 주막집 주인에게는 테오폴드라는 아주 똑똑한 아들이 하나

★피마 파환★

벌레를 먹고 사는 풀

여러 분은 벌레를 먹고 사는 풀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벌레를 먹고 사는 풀이 여러 종류 있는데, 그중 “곤곤이 주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곤곤이 주걱”은 질척질척한 습기가 많은 곳에 나는 풀도, 초버들에는 아주 조그맣고 예쁜 꽃이 핍니다. 그 잎은 주걱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아주 주의하여 보면 잎저쪽에 많은 가느다란 털이 나고, 그 끝에 이슬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 구슬이 벌을 받아서 암적 만작 빛나는 모양은 피 아



름달습니다. 그래서 이슬 같이 빛나는 구슬을 발견하고 모기나 다른 작은 벌레들은 좋아하여 그곳에 와 앉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거기에 앉기만 하면 그 벌레는 그만 생명이 끊어지고 맙니다. 즉 그것은 구슬에 퍼 끈끈한 물이 있는 까닭으로, 벌레는 꼼짝할 수 없이 되어 몸부림을 자꾸 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무 붙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 젖다고 많은 가느다란 털이 구부러져서 딱딱 벌레를 누르고, 그러는 동안에 끈끈한 물이 열달아 나와, 나중에는 벌레가 그만 녹아버리고 맙니다. 말하자면 이 풀은 벌레 국물을 먹고 살아 가는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이 테오폴드는 마부 나이는 어렸지만, 아버지를 도와 집안 일을 여러 가지로 보살피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가게에 있는 술통에 귀를 기울이고 툭툭 두드리곤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두드리는지, 처음에는 꼭 이상스럽기만 하고 무슨 일문인지 통 몰랐으나, 그리나 테오폴드는 아주 똑똑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필연코 그 까닭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두드리면 속에서 울려 오는 소리에 따라, 아직도 술통 속에 얼마큼 술이 남아 있는지 아는 것이로구나.” 하고.

나무 판을 비쳐서 술이 얼마나 남았는지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통 언저리에 귀를 대고 통을 손으로 툭툭 두드리며 속의 소리를 들으면, 귀를 댄 곳에 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울리는

소리로 확실히 알게 됩니다. 통 속에 술이 없고 공기만 있는 곳에선 소리는 알게 들리지만, 술 있는 곳으로 오게 되면 그 소리는 당장 높고 큰 소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년시절이 있는지 10년 후, 이 테오폴드·오에 부룩카아 소년은 훌륭한 의사가 되어, 그 때의 여왕(女王) 마리아·테레사의 지의(侍醫……임금님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 부탁을 받아 무슨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을 태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뜻밖에도 가슴 속에 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물이 고여 있는 것만 알았던들 이 병자를 반드시 고칠 수 있었을걸!”

테오폴드 의사는 꼭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물이 고일 것을 모른 까닭으로, 여러 사람

이 생명을 잃은 일이 없도록 하여달라 어떻게 해야 할는지 하고 밤 낮으로 궁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 때, 필연코 테오폴드 의사 머리에 떠오른 것은, 어릴 때에 자기 아버지가 주막집에서, 툭툭 툭툭 술통을 두드리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앗! 그렇다. 그것과 똑같은 방법을 병자에게 써 보자.”

이렇게 테오폴드 의사는 결심하였습니다. 정말로 이 생각은 훌륭한 성공이었습니다. 그 후 테오폴드 의사는 연구를 하고 또 하여, 이 타진법에 대해서 자세하고도 훌륭한 책까지 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학이란 꼭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조그만 관찰(觀察)에서 열쇠를 얻어 차차 차차 연구하여 발명되는 것입니다.



### 감 자 (甘藷)

지금 우리가 널리 식용(食用)에 쓰고 있는 감자는, 대개 어느 때 우리

나라에 들어 왔는지 여러 분을 아십니까?

즉, 그것은 지금부터 178년 전 이씨조 열조(英祖) 임금 때에, 이 장언(李匡呂) 라는 사람이 농정대서(農政大書)라는 책을 읽고, 감자가 대단히 사람에게 유용(有用)하다는 것을 알고, 중국에서 구하려다가 뜻대로 안되어 또다시 남로(南路)를 좇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通信使)로 조연(趙嚴) 이라는 사람이 남방에 가는 전에 종자(種子)를 구하여 가져오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는 한편 사람을 동래(東萊) 지방으로 왕태하게 하여, 종자 하나를 얻어 석울트 가저와 재배(栽培)하여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나라 각처에 퍼진 것은 그보다 1년 후, 동래 부사(府使)라는 직업을

가진 강필리(姜必履) 라는 사람의 권력을 얻어 주야로 노력 연구하여, 온 나라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자는 중앙 아메리카 콜럼(原譯) 일바. 지금으로부터 약 450년 전에 처음으로 크럼프스가 식반아로 가져와서부터 약 150년 후, 지금부터 300년 전의 은 세상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 8. 약대 주요 설

“약대는 등에 혹이 있어서 약대?” 하고 광호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혹은 무엇하려고 나왔나요?” 하고 옥미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타고 앉아서 꼭 쥐라고 나왔지.” 하고 옥주가 야양을 빙니다.

삼촌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 네 생각에는 아이들이 타기 쉬우라고 일부러 등에다가 자리들 파 놓은 줄로 아니? 그러나 여기 이 약대는 혹이 들이지만, 사막에 가면 혹이 한 개만 붙는 나뭇잎도 있잖아. 그 약대를 활짝에 붙잡을 데가 없어서 어떻게?”

“저 약대좀 타게 해 주세요” 하고 옥주가 까물었습니다.

삼촌이 시기한테 교섭을 했더니 약대 한마리에 꼭 아이들밖에 못타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간동이 혹 사이에 타고, 하나는 목에 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호는 목에 타고 옥미는 옥주들 안고 혹 중간에 앉습니다. 그래서 겨우 셋이서 다 했습니다. 약대 한 마리에 꼭 아이들밖에 못타는게, 지독으로부터 한

동네 아이들이 역시 약대를 타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반가워서 손을 들어 만세를 불렀습니다.

약대를 타고 한 마퀴 들고 나서 그들은 삼촌을 가운데로 하고 둘러 앉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혹은 과연 무슨 소용인가요?”

“아까 말한바와 같이, 혹이 두 개 있는 약대도 있고 혹이 한 개만 있는 약대도 있는데, 혹 두 개 있는 것을 텍체리안 종이라 부르고, 혹 한 개 있는 것은 아키비안 종이라 부른다. 이 혹들은 사실에 있어서 일종의 밤주머니다. 약대들 음식을 잘 먹이고 쉬게 하면 살이 찌는데, 그 기름기가 전부 이 혹으로 모여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혹이 썩고 썩으면, 이는 영양이 좋은 증거요, 굵고 병들면 그 혹이 시들시들하고 주저 약는다.

그러므로 사막으로 행상을 하는 사람들은,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약대는 잘 먹여서 혹에 살을 찌워 가지고 떠난다. 그리하면 사막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오랫동안 굶더라도, 약대만은 그 혹의 영양분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 ★표마 과학★ 이상한 나무들

남아메리카에 있는 메키시코, 파나마 지방에는, 나무 줄기나 가지에서 몇 백개의 초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초를 단 나무 손으로 들어 가면, 마치 초를 많이 늘어 놓고 파는 가게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이 초 모양을 한 열매의 길이는 1메터 이상 되는 것도 있으며, 사과 같은 아주 좋은 향기(香氣)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나무로는 열매 아메리카의 황폐(荒廢)한 나무 숲에는 “카파니메시아·아루포레아”라고 하는 교목(喬木……줄기가 굵고 굵으며 곧게 높이 자라고, 그 위에 가지가 퍼지는 나무.)이 있는데, 재미 있는 것으로 그 줄기는 방추형(紡錘形)이며, 크고 둥둥하고 줄기의 맨 끝 끝부터 서부터 사



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멀리서 바라다 볼 때에는, 마치 만화에 나오는 무우나, 콩의 모래미 같아서 부지중 이 같이 익을 때까지 구르면 하느님의 조화(造化)에 웃음이 나올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의 높이는 50메터나 된다고 하며, 줄기의 굵기는 5메터나 된다고 합니다.

“약대에게는 또한 뱃속에 물을 보관하는 물집이 있어서, 오랫동안 물을 안먹어도 썩지 않는다. 소에게는 이 뱃속 물집이 네 개가 있고, 약대에게는 세 개가 있다. 그래서 약대는 뱃속 물집이 동동하면 오랫동안 사막으로 굶고 여행하여도 무방하다.”

“약대의 발바닥을 좀 보아라. 발바닥은 도무지 두 개 뿐인데 바닥은 땅석처럼 툭툭해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면 갈바닥이 늘어난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길도 없는 모래 위를 걸어도 별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약대 무릎을 또 보아라. 그 무릎에도 툭툭하게 살이

붙어서 쫘아 앉을 때, 무릎이 파히 아프지 않을 것이다. 코는 언척이 코지만 사막에서 큰 바람을 만나 모래를 날릴 때에는, 약대는 그것을 꼭 참을 수가 있다. 사막에서 길을 잃던지 바람을 만나서 일행이 모두 죽는 일이 있더라도 약대만은 험한해서는 죽지 않는다.

약대는 사람과 사냥사가 떨어져 여러 천 년이 되었지만 절대로 사람과 친해지지 않는다. 말 같은 것은 사람과 사냥사 오래지 않지만 곧 친밀해졌는데, 약대만은 참 친밀성이 없다.”

“그럼 아까 우리가 약대를 봤을 때에 그 늑이 우리를 혼

들어 떨구고 싶었겠네?”

“심중 팔구 그렇지, 그렇지. 만 동물원에 와 있는 늑들은 바루해져서, 이제 평안한 말말이거니 생각하고, 별로 개집이 없어 흔들 흔들 다니지만, 사막지대에서 짐을 지는 약대들은 흔히 물어 나면 주인이 어깨를 막 붙여 붙기도 하고, 혹은 주인이 모래 위에 누워서 자는 것을 볼 때 가서 주인을 짊고 덩굴어서 주인을 짊아 죽이는 늑들도 많이 있다.”

“저기 짐승은 약대 같기도 하고 나귀 같기도 한데 무슨 짐승입니까?”

“그건 라마라고 하는 짐승인데, 남아메리카 산이다. 몸의 구조는 약대와 비슷하여서 물을 오래 저장 할 수 있고, 또 맑은 물이 없을 때에는 소금물이라도 꿀갈 마신다. 서반아가 가데루라는 나라를 정복했을 때, 서반아 사람들은 이 락다를 수 백만 마리를 이용하여서 산속에서 캐낸 금을, 산을 넘겨 해변으로 운반해다가 서반아 본국으로 가져간 일이 있다. 라마의 고기는 약대 고기보다 더 맛이 있고, 그 가죽도 귀하게 써주는데, 물론 알파카 가죽만은 못하다. 그리고 꼭 나귀처럼 고집이 세서 제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아무리 달래고 때려도 절대로 움직이지를 않는다. 라마가 물어 나면 기다렸다가 물어 끌린 후에야 갈 수 있다.

### ★ 동물의 수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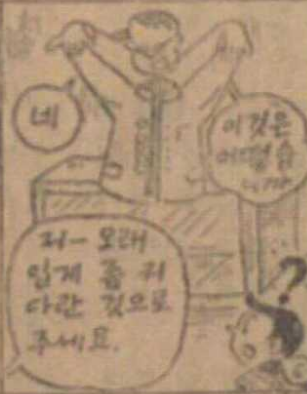
새는 얼마나 오래 살며 고양이는 얼마나 오래 사는지 아십니까? 옛날부터 학은 1,000년, 거북은 10,000년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모두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 아마 다른 동물보다 조금 오래 사니까 그렇게 전해된 것이겠지요.

다음에 여러 가지 동물들의 수명표를 실어드립니다.

이름	수명	이름	수명
거북	200-300년	곰	50년
코끼리	150-200	고양이	18
잉어	150	카나리아	17-20
카미귀	100	원숭이	16-18
학	90	금붕어	40
독수리	70-130	악어	40
사자	60	말	25-30
멜장어	60	범	25
티물기	50	공작	24
게	21-30	쥐	6
돼지	20-30	귀뚜라미	5개월
소	20	이	3개월
닭	20		

## 불질의 늘어남



## 빛의 굴절



## 큐우리 부인



장편 모험 소설

# 곡마단의 비밀

복극성 지음

정현웅 그림



## 27. 땅속의 비밀 출입구

무슨 통자일지 종소리가 요란히 나자 단장도 눈이 둥글하여 옆에 놓았던 모자를 집어 쓰며, 지팡이를 잡고

“자, 문간에 위협한 일이 생긴 모양이니 어서 빨리 될 걸로 해서 나가도록 하여라.”

단장은 말끝도 채 마치지 못하고, 자기의 등 뒷편에 있는 문을 열고 그리로 들어 갔습니다.

단장의 뒤를 따라 30 여명 단원도 모두 한 턱씩 땅속을 휘휘 둘러 보면서 그리로 들어 갔습니다. 문 끝에 있는 상흔은 새삼스레 망설거렸습니

다. 어느 곳으로 어찌서 가는 것인지 영들도 모르고 따라가자니 어두운 그 속에 발을 내밀거가 무시무시하고, 아니 따라가자니 단장 무슨 위협스런 말을 타드리고 있는

이 집에 혼자 있을 수도 없거니와, 그놈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따라 가지 않으면 순자를 어디다 감추어 두었는지 알아낼 수도 없을 것이라, 여기까지 예쁘고 들어 온 고생이 증도에 허사가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에라, 죽어도 한 번 죽지 별 수가 있겠니?”

“순자들 찾아야 한다. 순자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

가슴 속에 부르짖으면서 상흔은 그들의 뒤를 따라 섰습니다.

저기는 한간통의 조그마한 방이었습니다. 땅속과 같이 물건 귀박, 깨어진 흰 채상, 못쓰지된 침대, 그따위 물건들이 쓰레기통 속 같이 어지럽게 쌓여 있는데, 지천 갖은쪽 벽에 방장 같은 흰 휘장이 쳐 있고, 그 휘장 뒤편에 큰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놈들은 차례차례 휘장을 들고 그 구멍 속으로 기어 나가

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결단하고, 뒤에 따라 선 상흔은, 그 구멍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의 하는 대로 맨 나중에 휘장을 찢히고 캄캄한 구멍 속으로 고개와 허리를 굽으리고 들어 갔습니다.

“이제는 아무 급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안전하다.”

“그럼 이 구멍까지 나가기만 하면 그만이지.”

하면서 놈들은 마음 놓고 천천히 기어 가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구멍은 한 없이 길었습니다. 환잡이나 기어 가서 조금 널찍한 방 속 같은 헛간이 있기에, 어제는 그 구멍이 끝났나보다 하였더니, 거기서 증 증음 들며 가지고 다시 또 계속하여 캄캄한 구멍으로 기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까 그 집 그 방이 땅속으로 층계를 썰어나 지나 내려가 삼층방이었었으니, 이 가다란 구멍은 땅속으로 삼층이

나 되게 깊은 곳에 이렇게 깊  
지 끌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  
로 가면서도 상호는 속으  
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  
다.

당시를 두 개쯤은 꿰족  
한 오랜동안 캄캄한 기다란  
구멍을 지나서, 그들은 다시  
전등 빛 밝은 방에 나섰습니  
다.

위험한 일이 막으며 왔다는  
같은 물기에 놀라서 그들은  
목하면 어떻게 귀찮고 모르는  
망 속 걸로 가어서 만 물위로  
올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 그들이 이  
렇게 땅 속 깊이 깊이 삼층  
이나 되게 깊은 곳에 걸을 내  
놓고 다니는 줄을 알 수 있  
겠습니까.

“다 왔느냐?”  
하고 단장이 저기서 물으니  
가.

“네, 다 왔습니다.”  
하고 여러 명이 대답하였습  
니다.

“자, 여기서 한꺼번에 우  
우루 나가서 땅고 들썩 썩  
씩 동안을 떠어 슬금슬금  
나가야 한다.”

“네, 나가는 법도 다 잘 압  
니다.”

“자, 그러면 얼른 이 집 털  
보들 불러 오너라.”

한 놈이 종제 위로 쿵쿵쿵  
뛰어 올라 가더니, 한참만에  
야 털보를 띄우고 내리 왔습  
니다.

털보는 단장을 보더니 허  
리를 굽살하며서,  
“별안간에 뵈옵시옵니까?”

또 무엇이 쳐들어 왔습니  
까?”

하고, 물었습니다.

“무엇이 왔는지 위험하다  
는 보고가 있고, 나중에는  
도망하라는 종소리까지 났  
으니까, 무슨 큰 일이 나  
기는 난 모양이지. 그런데  
이 집에는 헛충이 어떻게  
되었나? 아직 손님들이 많  
은가?”

“네, 아직 일 한시 조금 지  
났을 뿐이니깐요. 술 먹는  
손님이 적 겠지 비 겠지 있  
습니다.”

“그러면 다들 들썩 썩씩 음  
식 먹고 나가는 것처럼 동  
안 동안 떠어 떠어 나  
가되, 저 나카무 하고 왕  
세발하고 기다기하고 세 사  
람은 곧 어판으로 가서 순  
작을 데리고 이리로 와서,  
장 일엿방에 넣어 두고, 털  
보와함

께 잘지  
키고있  
거라.  
이런위  
험한일  
이 생  
가는데  
는 암  
만해도  
순  
작가  
도망할  
까 봐  
서 염  
려다.”  
“네!”  
이리  
놈  
의름에

떠어서 이 말을 듣는 상호의  
귀는 쫓겨하였습니다. 순  
작, 순  
작, 순  
작하는 소리에 그의  
가슴은 갑자기 뛰놀았습니다.

“자, 그러면 들썩 썩씩 나  
가거라.”

단장의 명령에 단원은 졸  
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 28. 마굴을 빠져 나와

단원이 한 반쯤 나왔을 때  
에 상호는 쫓  
죽놈 한 사람과  
딱을 치어 나가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필 수 있으면 순  
작을 데리고 가는 세 놈과 함  
께 나가 그들의 뒤를 따르  
며 하였으나, 그들은 세 사람  
이 한 때가 되어 나간지 오  
래 되었고, 그 후 곧 그 다음  
차례에도 못 나가게 되고,  
한 시, 50 분이나 떨어져서 이  
제야 쫓  
죽놈 한 놈과 나가



게 명령이 내리니, 상호는 삼층이나 층지로 올라 가면서 어찌해야 순자를 만나게 될까 하고 그 생각만 하였습니다.

삼층이나 울타와 보니 그제야 거기가 땅 위었습니다. 좁다란 복도를 지나고 조그만 문을 쾅이나 지나니까, 거기는 길가 넓다란 땅이 슬청으로 되어, 10 여개 따로따로 떨어져 놓여 있는 직탁에, 여기저기 3, 4 인척의 손님이 둘러앉아서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흉악한 놈들이 곁으로는 이렇게 천연스럽게 요릿집을 꾸며서 장사를 하면서, 속으로는 단원들의 스글로 통하는 땅속 길을 파 놓고 드나드는구나 생각할 때에, 상호는 새로이 무서운 것을 느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호는 순자를 만나는 것, 만나서 때앗아 가지고 도망할 것 밖에는 아무 것도 생각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찌하여야 할고, 어찌하여야 할고 하면서, 중국놈은 벌써 문 밖의 한길에까지 나아갔건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물물하느라고 상호는 걸음걸이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ㄷ

그 때, 별안간에 상호의 지나가는 옆엿상에 혼자 앉았던 손님이, 한 발을 쭉 내밀서, 상호는 그 발에 걸리어 일드러질뻔 하였습니다.

“앗, 이것 실례하였습니다.”

앉았던 손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사과의 말을 하면서 일드러질뻔한 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극히 작은 소리로,

“나요, 나야.”

하고 급하게 속살거렸습니다. 상호가 보니, 천만 뜻밖에도 그는 기호였습니다.

“웬일이오?”

하고 기쁜 겹에 손을 흔들며 물으니까,

“앉으시오. 크게 말 말고 여기 앉으시오.”

하고 기호는 눈짓을 하여 상호를 그 직탁 앞에 앉히었습니다.

“이리로 그놈들이 도망하게 시킨 것은 내가 한 것이오.”

역시 작은 소리로 속살거렸습니다.

“응, 당신의 시킨 것이라니?”

“아까 저쪽 집에서 문지기 처럼 변장하고 들어 갔던 것이 나요. 그래 내가 눈치 채라고 당신의 발을 꼭 밟지 않았나요?”

“음지, 음지, 나는 그 문지기가 왜 나한테 덤비지 않고 발등만 밟았을까 하고 지금까지 궁금히 여겼었지……”

“당신이 앞으로 들어 간 후에 나는 그놈을 묶어서 데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당신이 도로 나오지를 않는고로, 어떻게 염려하였는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소식을 알아 보

는 재주가 있어야지. 당신 이 혼자 그 속에 들어 가서 불붙리기나 하였으면 땅속에 생명이 위험할뻔 있어서, 무슨 괴물 생각하랴 못하여 주머니에 있던 돈 5원 짜리를 꺼내서, 묶어 가지고 있는 문지기 놈에게 주고 살살 피었지요. 그러니까 그놈이 원래 돈만 아는 중국놈이라, 5 원 짜리를 보더니 허가 통한 모양이야. 묻는 대답을 잘 합니다. 그래 문을 지키고 있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뛰어 들어가서 두 팔을 엮갈려 걸어서 보고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경 급하면 초인종을 누르면 다 땅속 길로 도망하는 법인 것도 다 배웠지요. 그래 그 땅속 길로 도망하면 이쪽 이 요릿집으로 빠져 나오는 것까지 알고는, 그놈과 옷을 바꾸어 입었지요. 그리고 회중 전등을 켜 들고 얼굴을 대장 그놈처럼 꾸며 가지고 들어 갔던 것이야요.”

“참 잘 하였소이다. 그러시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지 모를 것을……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도 관계 없나요?”

“아무 염려 마시오. 여기는 보통 요릿집으로 꾸민 것이니까, 아무나 들어 와서 술을 먹는데니까요. 이야기를 크게만 하지 않으면 그만이야요.”

“음지, 음지.”

“그래 변장을 하고 들어가

모니카 쪽 불붙여서 고생을 당하는 줄 알았던 당신이, 거기 무사히 앉아서 팔레하고 있는 것을 알고, 우선 안심하고 위침하다는 보고만 일문 하고 모로 귀어 나왔지요. 그때야지 거기 오려 있다가는 서무로 제법 장한 것이라 환로가 날가와서요."

"밤이라 그러면 일문 보고는 모르겠습디다."

"그때 나중에 초인종까지 울러 놓고는 이제는 모두 땅속 절로 해서 요릿집으로 뛰어들어 나오려니 하고, 다시 옷을 따주어 입고 이리로 귀어 와서 술 먹는 제하고 당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앉았는 것이야요."

"참말 잘 하셨소. 그런데 그정말 문지기 놓은 지금 어디 있었소?"

"그놈은 역시 묶어 놓은 채로 그 벽돌집 대문 앞에 항상 제가 앉아

있는 문지기 자리에 누어 놓았지요."

"옷을 벗기고 나서 다시 묶었구로?"

"네, 고생스러워도 잠깐만 묶어 있으라고 했지요. 나중에 돈을 또 주마고 했지요."

상호는 기호가 항상 자기만큼 제주와 퍼가 적은 줄 알고 갑갑하게 여기다가, 오날 그 일을 보고 참말로 마음속에 기뻐하였습니다. 그만하면 문뜰한 일군으로 믿을 수 있지 된 것이 제일 기뻐합니다.

"그런데 순자씨는 어찌 되었나요? 그 속에서 못 만나셨나요?"

하고 이번에는 기호가 물었습니다.

"못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놈들이 순자들 여기다가 갖다가 감추

어 문다고 세 놈이 데리러 갔어요. 뜰을 것입니다."

"그럼 그놈들을 쫓아 갈걸 그랬습디다그며."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나오는 차례가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때 놓치고 만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기다려 보지요. 어리로 데리고 올 것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서만 만나다 해도 때맞아 갈 수 없을 터인데요? 까딱하기만 하면 저편쪽 안에서 몇 명이 쏟아져 나올는지 모르니까요?"

"그럼 어쩔까요? 큰 딸이로구려."

"여기서 만나면 때맞지도 못하고 딸이야요."

"그러니 어찌면……"

하다가 상호가 말을 꼭 그치고, 털떡 일어



나 기호의 어깨를 꼭 찌르면  
시,

“셋!”

하였습니다.

기호는 그 소리에 깜짝 놀  
라서 고개를 돌이켜 상호가  
보는 쪽을 보니까, 일은 필  
씨 막다 쓰렸습니다.

한결로 난 문이 열리고 세  
놈의 남자가 먼저 들어 서는  
데, 그 중에 단장의 마누라가  
순자를 데리고 따라 들어 옵  
니다.

아아, 순자, 순자, 불쌍한  
순자! 얼마나 두들겨 맞고  
얼마나 고생을 하였는지 병  
사 같이 파랗게 마른 저 순  
자의 창혹한 얼굴!

두 사람의 눈에는 떨경계  
핏발이 서고 몸이 부르르 떨  
렸습니다. 그리고 상호의 눈  
에는 눈물이 솟았습니다.

## 29. 나다, 상호다

실상은 꼭마단의 비밀 소굴  
이면서 결으로는 못손님을 드  
나들게 하는 감전오리점, 무  
서운 오리점! 3층 서하실  
까지 있는 이 마귀의 집 속에  
얼마나 많은 악한이 엮드려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없거나  
와, 깊은 밤이건마는 대낮 같  
이 휘황찬란한 전등 밑에 이  
상 저 상에 앉아서 술과 요

리를 먹고 앉았는 놈들도 이  
느낌이 정말 손님인지 어느놈  
이 악한의 패들인지 몰라서  
생각만 하여도 몸이 떨리는  
괴상한 오리점에, 대담스럽게  
앉아서 상호와 기호가 순자  
를 구해낼 의논을 하는데, 그  
때 단장의 마누라와 세 놈의  
단원이 불쌍하게 파리한 순  
자를 에워싸고 오리점 앞문으  
로부터 들어 왔습니다. (물론  
단장의 명령을 받아 순자를  
이 집 속에다 감추어 두려고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  
아, 순자, 순자, 불쌍한 순  
자! 얼마나 고생을 하였는지  
병든 사람 같이 파랗게 마른  
저 순자의 얼굴! 두 사람의  
눈에는 떨경계 핏발이 서고  
몸은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들의 메가 열 명이거나  
백 명이거나 상관하지 말고  
와락 달려 들어 번개 같이 순  
자의 몸을 때앗아 가지고 총알  
같이 도망을 하였으면 얼마  
나 얼마나 좋았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은 지금 경우에  
꿈에도 바랄 수 없는 일이고,  
서둘러 덤뽀다가는 무슨 불  
편을 당하게 될는지 모르는 리  
이라, 두 사람은 울명거리  
는 가슴, 떨리는 주먹을 그대로  
쥐고 보고 싶을 수 밖에 없  
었습니다.

일어서 있던 상호는 팔에  
주지 앉았습니다. 앉으면서  
곧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고, 목에 걸린 술에 배이  
달린 엄필로 급하게 삼팔을  
하게,

나다, 상호다.

염려 말고 있거라.

오늘 밤으로 기호씨의 합  
계 구하러 오마!

이렇게 휘갈겨 써서 는 읽  
어볼 새도 없이 손아귀에 움  
켜 쥐고 다시 일어 섰습니다.

그 동안에 단장의 마누라는  
순자를 데린 채, 요미 조미  
회회 둘러 보면서, 오리점을  
지나 안으로 들어 가는 문밖  
으로 가다가, 털보 주인 영  
감과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  
다. 마치 남 모기에 오래간  
만에 찾아 오는 손님처럼 꾸  
미노라고 일부러 기다리게 하  
는 인자였습니다.

상호는 갑자기 술이 많이  
취한 걸음걸이로,

“제흠, 으응, 오늘은 몰사  
취한다.”

하고 취한 소리로 증일거리  
면서 비틀비틀 단장 마누라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  
는 처음 발견한 듯이 불그리  
미 그의 모가지와 등털미를  
물어다 보다가

“흥, 참말 비밀인걸, 우리

### ○소문 지식○

## 바다는 나이가 몇 살?

지구의 표면(表面)을 둘러 싸고  
있던 수증기가 응집 것이 바다입

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은 처음에  
는 소금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금을 품게 된 것은 때마침 육  
지(陸地)에서 흘러 들어가는 소  
다와 염소(鹽素)가 합하여 하나의  
화합물(化合物), 즉 소금으로 변  
한 까닭입니다. 현재의 여러 학자

들이 조사한 결과, 바닷물이 품고  
있는 소금의 양(量)은 6300만  
톤, 그리고 이것이 흘러 들어  
가에는 약 1억 년이 걸렸을 것이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나  
이는 1억 년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부하들은 단장 마누라의 몸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싶느라고 번개 같이 빠른 그 동작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술을 잡수면 혼자 양견하게 잡숫시 이제 무슨 실례의 것이오?”

단장의 마누라는 찰나찰나 못하여 이렇게 제법 경감지 꾸짖는 소리를 하고 잡힌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때는 벌써 순자의 손에 명함을 쥐어 준 후이라, 상호도 처음 정신을 차린채 하고 벌떡 일어나서,

“아이그, 실례했습니다. 술이 취해서 오릿집 포이 인줄 알고 그랬습니다.”

하고 능청스럽게 비물거리면서 사죄 인사문 하고 비물비를 자기 자리로 도로 돌아 왔습니다.

와서는 기호의 넘석다리를 넘어서 꼭꼭 밀러 제속해 가지고(눈빛 끝을 술값으로 내어 놓아 두고)역시 비물진음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계속—

비인 나하고 인사증 합시다그리, 제후.”

하면서 얼으러지는 것처럼 두 팔을 벌리고 단장의 마누라를 안으려고 덤뻐했습니다.

“아고머니, 망치해라.”

일본 말로 소리 치면서 단장 마누라는 급히 몸을 피하였으나 상호는 벌써 그의 왼편 손을 잡고 비물비를 순자의 앞에 쓰러져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오릿집이라 이러한 술주정은 흔하 있는 터이니까, 남들은 모두 그리 대단히 여기지 않고 재미 있게 구경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주인 털보와 부하 세 사람만은 벌떡 일어나서 서서 가깝게 다가

섰습니다. 단장 부인의 몸에 여차하기만 하면 달려들 준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단장 마누라는 자기가 잡힌 손을 뿌리치기에만 애를 쓰느라고 상호의 뒷손이 순자의 손과 마주 닿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소학생·중학생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 학생조선어사전 學生朝鮮語辭典

이영철 선생 엮음·이희승 선생 감수

수정판 제6판 파는 중입니다

값 250 원 · 지방송료 10 원

서울 鍾路 2街  
永保 彌寧 3層

乙酉文化社發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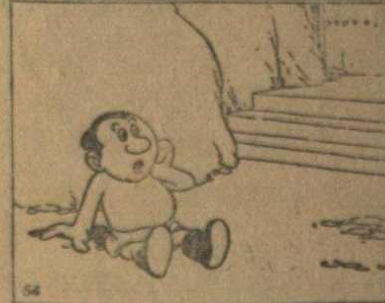
지방에서 注文하시려면 振替京城32547 會을 이용하십시오.



① 자춘이 성진 님 아버지의 말을 생각하 고 입을 꼭 다물고 밤 이리 같이 앉아 있는 것 을 본 대장은, 눈에서 눈이 피와 떨어지며, "성진 말을 안하면 이 장으로 전대 죽이는 수 밖에 없다." 하고 대문했습니다.

② 그리고는 자춘 의 가슴 한 부위를 향 하여 힘차게 드미 권 며 자춘은 자립제도 그 자리에 쓰러져 죽 어 버렸습니다. 대장은 그제서야 만족한듯이 너털웃음을 산이 띠 달 아나게 웃어대며 너 더 드미 권 가 버렸습니 다.

③ 복두 권성은 주 온듯이 밥 하늘에 눈 이 떨어, 죽은 자춘의 몸을 휘둘러 버리고, 절 력의 소나무만이 자춘 의 죽은 것을 꾸이나 하는듯이 바람에 소 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춘의 몸은 바위 위에 있었지만, 혼은 저우 으 로 버려졌습니다.



④ 이 시공과 죽은 사이는 여간 떨어져 있 비, 그 사이에는 여간 길 이라는 길이 있 어, 그 곳은 알 수 없이 캄캄하고 얼음 같은 찬 바람이 펄펄 불고 있습니다. 자춘은 이 찬 찬 바람에 불려 한 번 이 자꾸 자꾸 번의 배 더 갔습니다.

⑤ 여월 공함을 사 면게 알모 되지 않는 법 이란 어찌 속으로 결 단 아니기에 기공의 향전하고 배는 크라 쓰 러질 지경인데, 나뭇잎 같이 떨어진 단리가 보 기 좋게 나가 풍그락지 는 바람에 얼얼함을 절로 넘겨졌습니다.

⑥ 얼마 있다 정령 을 차리고 보니, 조조 은웃웃과 피상한 문 앞 까지 와키 있는데, 흰편 에는 삼라전(森羅殿) 이라고 써여 있고 문 에서는 웃는 것도 아니 요, 우는 것도 아니고 서우는 것도 한 이 상한 소리가 들리 습니다.

⑦ 문이 열리며 키 가 지는 자나 되는 미 리에 불 달린 드레끼 한 마리가 후박박 뛰이 나오더니 쿠 달 잡고 자춘의 어깨쪽저와 팔 을 비틀며 일으켜 세 우고 높은 부름으며, "너 이름, 짐승이냐?"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⑧ 자춘은 숨도 크 게 쉬지 못하고 도끼 벼가 들는 말에 한아 미 대답도 없이 서 있 으니까, 도끼 벼는 화가 나며, 너 이름은 짐승 나 보아라 맛이 어떨가." 하고 자춘의 목덜미를 치켜 물고 향으로 걸 이 것이 물어 갔습니다.

⑨ 한참 동안이나 굴 속 같이 어둠 짙짙 한 길을 지나 넓은 마 당으로 나오더니 한 부 째와 세 동승이 물치 는 의함에 화마뜨르코 양아를 뽐뽐 하다가 간 성히 일러나 않은 자춘 의 등을 두겨서서 떠날 당이 보우르스덜져 떠 났습니다.



⑩ "이놈아, 네가 무 슌놈에게 감미 아미 살낼 리라도 없이 온 거야?" 하고 휘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쳐다 보니, 시뻘건 곳에 벌 썩머리는 관을 쓴 왕 이 자나온 얼굴로 높은 부름으며 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라대왕 인가 봅니다.

⑪ 자춘은 보기에 도 무서무서한 열라대 왕의 얼굴을 보며, 저 도 모르게 대답이 나올 뻔 하다가 절권자 할 아버지가 "말을 할 마 더라도 하길 못한다." 하시던 말이 생각나서 눈을 내려 감고 빙어 리 같이 앉았습니다.

⑫ 열라대왕은 눈 섬을 끈부 세우고 미 쥘듯이 말라 붙으며, "여기가 어딘데 감미 누구의 명명이라고 적혀 있는 거냐. 짐 참을 한 마더도 안 걸 것 같으면 저우르스덜져 물아 혼을 내코야 따 단다." 하고 썰었습니다.





① 망건과 뚝배기

바보사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장날이어서 그의 장인이 사귀를 불러,

“여보지 오늘 장에 가서 내 망건 하나 사다 주게.”

하고 부탁 하였습니다. 망건이란 옛날 영감님들의 갖추에 쓰는 모자입니다.

“내 머리와 자네 머리가 비슷하니까 자네가 써 봐서 맞는걸 사오게.”

“네!”

남편이 장에 간다니까 그의 아내가, 또

“여보 장에 가시면 뚝배기 하나 사오슈. 살적에 물을 부어 보고 새지 않는 것으로 사와야 해요.”

하고 부탁하였습니다.

사귀는 장에 갔습니다. 그러나 바보니까 정신도 똑똑하지 못할지 아니했습니까?

그는 제일 처음으로 망건파는 집엘 갔습니다.

“망건 하나 삼시다.”

“네! 마술대로 몰라 삼쇼.”

사귀는 망건을 하나 골라 들고 찰찰이나 이리 보고 저리 보다가 주인에게,

“나 물 한그릇만 주시오.”

하고 물을 청했습니다. 정집이 나쁜 그는 뚝배기에 물을 부어 보라는 말을 망건 살적 그렇지 하다는 것으로 바꾸어 생각하였습니다. 주인기운이 좋그래서 물을 떠다주

니까,  
“물을 부어 봐서 새지 않는 것으로 사오셨습니까.”  
하고 망건에 물을 부어 보았습니

다. 망건이라는 것은 말의 꼬리털로 만든 것이므로 꼭 채의 밑 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오죽이나 물이 잘 새겠지요. 물을 부어 보니 콸르르 새니까,

“에잇! 그 망건 물이 새서 못쓰겠군.”

하면서 그는 망건을 못사고 이번에는 그릇 파는 가게로 갔습니다.

“뚝배기 한 개 삼시다.”

② 서울 송편

옛날 어떤 시골에 병생 소원이 죽기 전에 서울 구경을 하고 싶어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가난해서 입고 나갈 옷 한 가지도 없고 돈도 없어서, 마음만 서울 구경을 떠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하는 수가 없었



하고 뚝배기를 하나 골라 들고,

“머리에 써 보고 사오셨습니까!”

하며 머리에 써 보니까 맞을 이가 있습니까? 아무리 쓸려고 애써 봐야 꼭 붙어 맞는게 있을 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건도 뚝배기도 사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고 집으로 돌아 왔답니다.

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루는 이웃집에서 옷이며 장을 빌리고, 노잣돈도 얼마간 창간하여 가지고 서울 구경을 떠났습니다. 옷이며 장은 빌린 것이 하나도 몸에 어울리지 않고 그야말로 아주 웃습기 짝이 없었습니다.

두루마기는 무릎에 차고, 장

은 머리에 얹어 놓은 것 같았  
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흉을  
보진 말진 서울 구경 가는 것  
이 시켜서 정중정중 뛰면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여정을 걸어서 시골 사람은  
마침내 서울 장안에 당도하  
였습니다. 말만 들은 남대문  
이며, 사람들이 많은데는 그  
만 어리둥절 해졌습니다.

“서울 사람은 잘 숙여먹는  
다녀다.”

하는 생각이 나서, 시골 사  
람은 눈을 똑바로 뜨고 조금  
도 눈을 팔지 않으리라 결  
심하고 이곳 저곳 구경을 다  
닐때 정신을 잃고, 배 고프  
것보다 더 아픈 것도 잊어버  
렸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에 가물  
거리고 저녁 때가 가까워 오  
자, 비로소 시골 사람은 배고  
픈 것을 깨닫고 어디 음식을  
파는게 없나 하면서 두리  
번 두리번 사망을 살펴 보며  
걸었습니다.

마침 한 곳을 지나려니까,  
조그만 가게 앞에 커다란 불  
동이에 송편을 가득 담아 놓  
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서울 송편은 물에 담아 놓  
고 파는구나.”

이상스럽게 생각하면서 가  
게 앞으로 다가 섰습니다.

“이거 한 개에 얼마요?”

“네! 한 푼에 두 개을시  
다.”

그런데 불동이에 담아 놓  
은 것은 송편이 아니라 풀을  
썬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시골 사람은 그것이 송편  
인줄 알고 한 개를 덩석 입  
에 물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되었겠습니까? 물경 하는 것  
이 그야말로 일생 처음 먹어  
보는 서울 송편입니다.

“서울 송편은 속도 안 박는  
군?”

시골 사람은 주인이 자주  
웃음을 참는 얼굴을 바라보  
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  
고 산 것이라 아깝기도 하고  
그대로 먹자니 넘어가지 않을  
고 한참이나 걸릴 때다가, 한  
개를 겨우 먹고 시골 사람은  
돌아 섰습니다.

“풀을 송편이라고 사 먹는  
바보는 처음 보았네.”

하면서 가게 주인은 뱃살  
을 잔뜩 쥐고 한참이나 웃었  
습니다. (끝)

## ○온도(溫度)와 한 난 계

온도를 말할 때, 우리들은 섭  
씨(攝氏) 몇 도나, 또는 사람의  
체온(體溫)이 일반적으로 섭씨 36  
도—37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러나 온도를 말하는 때는 이 섭씨  
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밖에  
화씨(華氏), 열씨(列氏)라는 것  
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무  
엇을 표준삼아 만든 것이며 또 누  
가 발명하였을까요? 우리가 항  
상 쓰는 섭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섭씨(攝氏)……서기 1736년 서  
전 사람 세루슈스라는 분이 발명  
한 것으로, 물이 얼었을 때, 즉  
빙점(氷點)을 0도로 하고, 물이  
끓었을 때, 즉 불등점(沸騰點)을  
100.도로 정한 것으로 지금 체온  
이나 학술(學術) 방면에 쓰이고  
있습니다.

화씨(華氏)……서기 1714년 물  
일 사람 파렌하이트라는 분이 발  
명한 것으로, 소금에다 물을 부었  
을 때의 온도를 0도로 하고, 사람  
의 보통 체온을 96.도로 정한 것  
입니다.

열씨(列氏)……서기 1730년 물  
일 사람 레에콜리라는 분이 발  
명한 것으로, 빙점(氷點)을 0.도  
로 한 것은 섭씨와 같고, 물이 끓  
었을 때 즉 불등점을 80도로 정  
한 것으로, 프비엔 어느 지방에서  
는 지금도 쓰고 있다 합니다.

민일 화씨 온도를 섭씨로 고치  
려면, 화씨 온도에서 32도를 빼고  
5를 곱치고 그것을 9로 쪼개면 됩  
니다. 그와 반대로 섭씨를 화씨  
로 고치려면, 섭씨 온도에 9를 곱  
치고 5로 쪼개어 거기다 32를 보  
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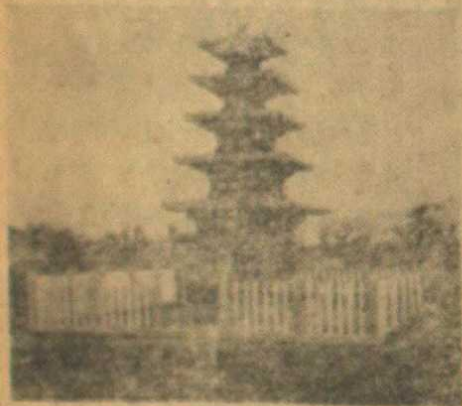




## 4 부 여 (扶 餘)

### 이 흥 직

**부여(扶餘)**는 충청 남도(忠淸南道) 남쪽 금강(錦江)하류 강가에 있는 지금은 조금도 보잘 것 없는 읍(邑)이지만 옛날에는 백제(百濟)의 마지막 서울로서 번화스로운 곳이었습니다. 백제의 서울은 세 번 옮겼습니다. 처음에



**부여석탑** 충청 남도 는 가운데 서 있는 화강암(花崗岩)으로 지어졌다. 높이가 약 십여피, 네모의 기둥이 있고 간결한 주너 받음기 받, 또는 지붕의 선이 무르익은 가벼운 맛을 보이고 있는 걸작이다. 이 탑의 세 밑층을 이루하여 사면에 각각 강수 소정방(綱定方)이라 백제를 칭사하는 세전으로 평계단(平階臺)이라 하고 지하는 원은 여기 정림사(定林寺)라는 백제의 훌륭한 절이 있었다.

는 지금 서울 동남 한강(漢江) 저편의 광주(廣州)에 있었고, 다음에는 충청 남도 공주(公州)로 옮겼다가 1천 4백 년 전, 제 25대 왕 성명왕(聖明王) 16년 (서기 338년)에 부여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그 후 최후의 임금 의자왕(義慈王)까지 6대 124년간 백제 문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쪽에는 고구려(高句麗), 동쪽에는 신라(新羅)가 있어서 서로 명렬하게 세력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제는 차차 두 나라에 눌려서 서남쪽으로 나라의 중심을 옮기게 되었습니다만, 공주에서 부여에 옮긴 성명왕은 훌륭한 임금으로서 나라일을 척척하게 다스리시 백제에게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공주 같은 좁고 바다에 나가는 길이 먼 곳을 버리고 더 넓고 바다에

가까운 금강 하류(下流)에 있으며 뒤에 논산(論山), 한강(江景)의 큰 주창(穀倉)을 지나고 있는 부여로 옮겼습니다. 왕은 여기서 남진(南進)의 나라와 통하여 그 높은 문화와 힘을 얻는 동시에 그 문화문도 일본(日本)에 주면서 그 군력(軍力)을 끌어서 세력을 누르려는 큰 포부(抱負)를 가지고 실제로 일을 하여 나간 영왕(英王)이었고, 부여를 중심으로 이 나라의 계획(計劃)은 변하지 않았습니니다.

부여의 옛이름은 소부리(所夫里), 또는 사비(泗比)라고 하였는데,

소부리(所夫里)는 원래 우리나라의 말을 한자(漢字)음을 빌려서 쓴 것이며, 아마 지금 우리 말의 "서울"과 같은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런 뜻을 모르고 소부리를 더 중국 이름답게 고쳐서 사비(泗比)라고 하였습니니다.

부여 도성(郞城)은 동북으로부터 흘러 내려서 남으로 뻗어가는 금강을 자연의 방비선으로 하고 동쪽 넓은 평지와 구릉(丘陵)을 안에다 넣고 남쪽으로 길게 도성(土城)을 쌓아서 반달 같은 성을 이루고 있어서, 이것을 나성(羅城)이라고도 합니다. 이 나성은 다는 남지 않았으나 부여서 논산에 가는 도중에 동문(東門)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나성 안 서북편에 바로 금강을 등지고 부소왕 성을 튼튼하게 쌓아서 왕궁성(王宮城)으로 삼았습니다. 이 나성을 쌓아 놓고 동쪽 또는 강 건너 서편에도 이기 지기 성성이 많이 있어서, 부여를 막는 튼튼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논밭으로 전 나설 안에 경지와 산골에는 풍류한 백제 귀족(貴族)들의 저택(邸宅)이, 웅장한 절이 여기 저기 많이 있어서 문화의 활기를 띠었을 것입니다. 부여 부근 산에 많이 흩어져(散在) 노출(露出)된 고분(古墳)과 약간의 석탑(石塔), 석불(石佛), 석조(石槽)는 겨우 그 옛 모습을 상상(想像)할 수 있는 모습이 될 뿐이나, 부여의 고적은 너무나 활활하여 백제가 멸망(滅亡)한 슬픈 역사를 더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도 유명한 것은, 지금 군청 남쪽은 가운데 보통 평제탑(平濟塔)이라고 말하는 석탑이 서 있습니다. 이곳은 옛날 정림사(定林寺)가 있었고 물론 이 석탑도 이 절의 것이라는 것이 최근에 이 부근에서 나온 옛기와의 새긴 글

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석탑은 수가 적은 백제 석탑 중에서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조각의 하나로, 우리 나라 석탑에서 가장 중요 합니다. 이 석탑 뒤에는 석불이 있는데, 얼굴이 너무나 손상되어 알아 볼 수 없이 된 것이 유감입니다.

부조산 성 안에는 동서 양쪽에 열월대(迎月臺), 송월대(送月臺) 두 봉우리가 있어서 바로 밑에 강을 내려다 보고, 또 멀리 강 건너 산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조망이 훌륭한 곳입니다. 백제 왕실이 경시에는 풍류놀이도 하고, 전시(戰時)에는 망대(望臺)로도 쓴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산 성터에서는 여기 저기서 왕궁에 썼던 기와 또는 부처도 나왔습니다. 그러고 동쪽 열월대 근처에는 군창(軍倉)이 있어서 지금도 불타 남은 군량미(軍糧米)를 파낼 수 있습니다. 또 이 성 안에는 백제를 멸망시킨 당(唐)나라의 장수 유인원(劉仁願)이 공을 자랑하는 비(碑)가 세워 있으니, 백제의 남은 한을 고시하며 우리 민족으로서도 유감스런 기념물입니다.

산성 강가에는 백제 궁실이 망할 때에 남녀

들이 물에 몸을 던졌다는 낙화암(落花岩), 당(唐)나라의 장수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함락시키기 전에 용(龍)을 잡았다는 조룡대(釣龍臺), 또는 여기서 더 강을 올라가서 저편쪽에 있는 백제의 나라의 큰 일출중신들이 모여서 의논하였다는 천정대(天政臺)같은 전설이 붙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부여에는 후에 그 아름다운 풍경과 전설이 일컫는 부여팔경(扶餘八景)이 꾸며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또한 부여를 회고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산하(山河)에서 1천 3백 년 전에 동양의 큰 나라 당과 신라의 연합군이 백제 도성을 치고, 그 후 수년 간 백제의 남은 백성들이 이 일대(一帶)에서 맹렬히 최후까지 반항을 하며, 한편 일본(日本) 수군까지 동원시켜서 당군(唐軍)과 이 백마강 물이 끓게 될 때까지 격전(激戰)하자, 크게 저서 물러스게 되었던 백제 종말(終末)의 비참한 역사를 생각할 때에, 고요한 현재 부여도, 또다시 크게 움직여 보이며, 이 나라 저 나라의 힘을 너무 끌어서 이용하면 우리 나라 안에 복잡한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명심하게 될 것입니다.



낙 화 암(落花岩)



북수정(水北亭)



고관사(阜關寺)

부조산의 그것을 반원형(半圓形)으로 둘러싼 금강 주물강(金剛江)을 인상하게 된다. 부조산 뒤 강가의 낙화암(落花岩)은 고관사(阜關寺) 조룡대(釣龍臺) 천정대(天政臺) 등 일출의 부여는 이 아름다운 백마강을 중심으로 많이

남겨져 있다. 기록에 유명한 왕흥사(王興寺)가 어디 있었는지 확실치 못하나 하여튼 이 강가에 있어서 왕은 백제 그 절에 살았다 한다.

동요 미루남에 련 태 응

걸쳤습니다 미루남에  
면산이 나차옴게 걸쳤습니다

걸쳤습니다 미루남에  
눈 구름이 한몽테기 걸쳤습니다

걸쳤습니다 미루남에  
누구전지 연도 하나 걸쳤습니다



(그림·김 의환)

# 조선방과습생원

(2)

## 이 성 표

벼룩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도래벼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멕시코나 남미(南米)와 같은 열대지방(熱帶地方)에 있는 것입니다. 이 벼룩은 숫놈은 해가 없으나, 암컷은 피부에 구멍을 내어 파고 드는 것인데, 만약 이것한테 사람이 걸려들면는 그 아픔에 못이겨 미쳐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고 무섭다면, 벼룩이 흑사병(黑死病)을 매개(媒介)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쥐벼룩입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발생할 때 쥐를 박멸해야 된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쥐벼룩을 없애자는거나 다음 없는 것입니다.

벼룩의 발은 비상히 발달

되어서 뛰어넘기(高跳) 건너 뛰기(幅跳)로는 생물 중에 제일 가는 실수입니다. 벼룩은 높이로는 자기 몸 키(體長)의 사십 배(四十倍), 넓이로는 이 백 배(二百倍)를 뛰한다고 합니다. 만약 사람이 자기 키의 이 백 배를 뛰어넘는 재주들 가졌다면, 한강(漢江)이나 화신상회(和信商會)같은 것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옛날 임 췌정(林巨正) 같은 장사는, 두 발을 모으고 남대문(南大門)을 뛰어 넘었다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벼룩이란 놈은 뛰기만 할 줄만 아니라 뛰다 열려하여서, 갖은 재주들 다 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벼룩의 곡예단(曲藝團)은 미국, 영국, 불란서, 백이의 같은 나라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지금도 벼룩의 곡예단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벼룩은 티끌에서 생기는 것이라 했지만, 벼룩이 티끌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전래된 이야기를 압니다.

벼룩은 유충 시대(幼蟲時代)에는, 벉름이나 장관사가 찢어진 틈새, 혹은 못자리 밑 같은 데의 티끌 속에서 먹은 밀레아니면 식물질(植物質)의 것을 먹고 자라 납니다. 그러니 요놈의 발생을 예방하려면 첫째로 정결히 살게 한 후에, 더듬티같은 살충제(殺蟲劑)로 벉라를 내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 다음 이의 이야기로 올



입니다.

새벽이(잔그랑이) 가랑둥이(구찌) 잘 보아라 두 바위(손유)름으로 빨래간다. 양감루손이(젊은색씨)한테 잔미반 돌아오기 쉬워도, 부물다비(늙은마님)한테 만나면 죄정키가 어렵다- 이것은 옛날부터 전하는 이라명의 한 구절입니다.

집게 받하자면 빨래 속에 짜여 가는 이의 자란(自嘆)인데, 젊은 색씨한테 걸리면 모든 것이 거처르니까 되 살 수가 쉬워도, 꼬뽀스런 늙은 마님 손편에 다닥들이면 십 중 팔 구 천당을 가는 판이 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시골 선비가 선술로 과거(科擧)를 보러 와서 여관에 묵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목덜미가 가려워서 잤히고 보니 큰 왕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놈을 장난삼아 주머니 칼로 기둥에다 구멍을 낸 다음 이를 집어 넣고 종이로 봉을 해 두고 시골로 내버려 갔습니다. 그 이튿 해 다시 문일로 서울에 온 김에 그 여관에 다시 묵게 되었으며, 우연하게도 그때 그 방에 잡혀 있었습니. 그래서 식날 때 기억이 소생되어 봉래는 기둥 구멍을 뜯고 보니, 이는 시머죽은 채 살아 있었습니. 호기심에 팔에다 올려 놓고 피를 실컷 빨랐습니. 그런데 나중에 그 곳이 몹시 가려워서 자주 긁다가, 험집이 나고, 험집이 발성을 부

터어 총기가 크게 된 끝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마침내 시골 선비는 죽고 말았습니다.

보복(報復)의 일념(一念)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어서, 아무리 미물의 생물이라도 트집할 줄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무서워서 이같은 가증한 기생충을 소중히 받들라는 것은 천만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대륙지방(大陸地方)의 이는 크다고 합니다. 일례(一例)를 들면, 중국 거지들 문에 서식하는 이는, 크기가 수박 씨만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아 먹는 피의 분량도 많기 때문에 거지들은 절대로 이를 손톱으로 죽이지 않고, 입에 넣어 피를 도로 빨아 먹고 접테기만 뱉어버린다고 합니다.

이의 종류도 백이십종(百二十種)가량 있다고 하는데, 흔히 알려지기는 옷의 이, 머릿이, 사면발이들이며, 사람에게 제뿐 아니라 가축(家畜)에도 기생하며 음과 같은 피부병과 매르는 장질부사 같은 전염병을 매개합니다.

이의 아버지는 살이요, 어머니는 때라고 합니다. 아무리 새 옷으로 갈아 입었어도 근질근질하여 보면 잔그랑이 한 마리 짙은 눈에 떠는데 이는 특히 새물내를 좋아하는 까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를 없게 하려면, 옷과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상책이고, 새 옷보다 현 옷에 더 짧은 것은 이가 숨어 살수 있는 집이 많기 때문입니다. (끝)



### 파실 같은 것을 보자 기에 쓰는 법

사과 같은 과실이나 곡식등을 책보에 싣 때는, 처음에 그림 (1)과 같이 네 귀를 들어서, 다음에 그림 (2)와 같이 한 귀둥이를 한번 감아서 그 끝을 지금 같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 그림 (3)과 같이 붙잡아 매면 좋습니다.



### 꽃을 자를 때에는

꽃이나 풀을 자를 때에는 잘드는 칼로 잘라야 합니다. 손으로 막 잘라서 우글우글한 자리를 그냥 두면, 썩기 쉬우며 나중에 큰 오래 가지 않아 꽃이 시들어 버립니다. 먼데 갔을 때에 꽃을 가지고 오려면 칼로 잘 잘라서 가지고 오도록 하십시오.



# 노래를 잘 부르면

한 인현채

(2)

## 4. 바른 나디냄

노래마다 다 말이 다르고 곡도 다르니만치 노래 하나 하나의 나디냄도 각각 달라야 할 것입니다.

여디 분이 잘 아시는 무지개의 노래는, 비 그친 하늘에 알롱달롱 끊게 다리를 놓은 오색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니까, 이 노래는 역시 귀엽고 아름답게 불러야 할 것이고, 이순신 장군의 노래는, 이순신 장군의 용감하고 슬기로움을 노래한 것이니까 섹섹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울 밑에 귀뚜

라미 우는 달밤에"라는 기러기 노래는, 고요한 가을 밤 하늘에 처량히 울고 가는 의 기러기를 노래한 것이니까, 의 기러기를 가엾게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좀 느린듯이 쓸쓸한 기분을 자아낼 수 있게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이 되면 햇님도 찬살 더 먹고"라는 설날 노래는 희망에 넘친 설날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니까, 이 노래는 너무 느리지 않게 될듯이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불러야 할 것이요, "새 나라의 어린이"도 우리들은 무력무

력 자라는 새 나라의 어린이고도 착한 어린이라는 자랑스러움을 노래한 것이니까, 이 노래도 역시 너무 느리지 않게 꼭 자랑스러움같이 섹섹한 마음으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여러 가지 노래를 예로 들었는데, 다시 말하면, 가사에 쓰여 있는 글의 내용을 잘 나타 낼 수 있게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하려면 노래 공부할 때에는, 먼저 이 노래는 무엇을 노래한 것인가를, 가사를 여러 번 읽고 잘 알고 해야 합니다. 특히 노래마다 대개 빠르기가 다 다른데, 아무 노래나 느리게, 또는 빠르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한 노래 한 노래의 빠르기를 공부할 때에 잘 알아 두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 들 했는데, 이때까지 이야기 한 것을 잘 안 사람은 이제부터는 훨씬 노래를 더 잘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 애독자 아합 상리기

### ★ 바른 대답과 뽑힌 분 ★

#### 짐승의 이름

- ① 토끼      ② 부엉이      ③ 펭  
④ 다람쥐      ⑤ 새

#### 1 등 10 명

- 울 기호(충주 남산교 6년)  
김 용구(서울 교동교 4년)  
백 인기(계성 만일교 5년)  
송 영권(서울 은암교 6년)  
장 은석(서울 칠성교 5년)  
김 지영(서울 오계교 5년)

- 김 성원(월주 원수교 4년)  
조 경석(서울 태평교 4년)  
강 슬리(서울 일신교 6년)  
임 장후(서울 공덕동 120)

#### 2 등 30 명

- 서 수환(지주 안양교 2년)  
김 성구(청주 영정교 6년)

- 이 근배(서울 돈암교 3년)      김 영보(서울 청파교 5년)  
김 명복(서울 창선교 5년)      이 명우(서울 숙인교 6년)  
정 규석(인천 창영교 4년)      송 한식(서울 광희교 5년)  
이 순애(서울 덕수교 6년)      이 기정(서울 창선교 4년)  
박 기은(서울 석산 은행)      이 봉태(전북 이리 호남) (동 54)  
김 영애(서울 청계교 6년)      강 영자(서울 수송교 2년)  
유 정희(서울 태화교 5년)      권 영희(계성 만일교 4년)  
권 정태(서울 오계교 6년)      이 태성(서울 덕수교 6년)  
김 천경(인천 지림교 5년)      민 명소(서울 중로교 3년)  
강 오(서울 남대문교 6년)      임 근식(계성 만일교 3년)  
임 글자(서울 청계교 5년)  
남 기택(경기 포천교 5년)      ☆가도 맞추신 분이 많았  
최 경기(서울 무학교 4년)      으므로 재미를 풍아서 공수  
이 진광(제이 여자 중학)      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 1년)      비둘기와 새, 부엉이와  
남 상원(서울 광희교 6년)      박이는 다 맞은 것으로 판  
이 하영(서울 태화교 3년)      도 재미를 풍었습니다. (정  
이 명식(서울 공덕교 6년)      집선)  
윤 하영(서울 무학교 2년)



### ★인도의 힌두교★

이번에는 더운 인도를 구경하십시오. 부처님은 인도에서났으니, 불교는 인도가 제일일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지금은 천라 같은 나라에서 더욱 번성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제일 널리 퍼진 종교는 힌두교이며, 힌두교도가 제일 많이 모여드는 곳이 베나레스

는 곳입니다.

베나레스시는 칼카티와 베에리의 가운데쯤 있으며, 강가라는 강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도들에게는 이곳이 강가 강에서 제일 신성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힌두교도의 신앙(信仰)에 의하면, 이 강은 제일 존경하고 있는 시바신(神)의 발 밑에서 흘러 내려 온다는 것입니다. 시

바신(神)은 성산(聖山)에 살고 있어서, 그 북쪽은 발이 걸리고 은화수는 발과 언덕 있으니, 이 강은 은화수와 같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도에게는, 강가 강은 아주 신성한 곳이므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강가 강물에 몸을 씻으면, 몸과 마음까지 깨끗이 할 수 있으며, 죽은 뒤에도 강가 강물에 지시면

천당으로 올라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천 보로 사서 한 번 이 강물에 지신 다음 강가에서 화장을 해서, 떠는 제와 함께 이 강물에 띄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장하다가 나무가 모자라서 다 태우지 못해서 만장한 송곳이 더 내려 오는 수도 있다니 소름끼칠 일이 아닙니까?

베나레스의 강가 강에는 인도 각지에서 모여든 힌두교도들이 꽃으로 만든 목걸이를 목에 걸고 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 같은 때는 빈틈없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몸을 깨끗이 씻고 나서 시내에 있는 절을 찾아 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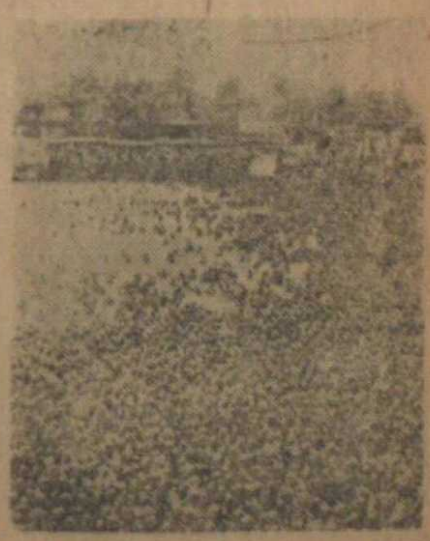
그러고 이 곳을 기차로 여행하면 이상한 풍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즉 기차가 강가 강에

걸쳐 있는 철도에 다달으면, 찻속의 힌두교도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돈을 강에 던지고 합장(合掌)을 하고 "강가·지이·자아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상 중요한 곳이므로 베나레스에는 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절도 한둘이 아닌데, 그 중에도 술가메라는 절에는 원숭이가 많이 살고

있어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절을 몽키·템플(원숭이 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나레스에서 또 한 가지 재미 있는 일은, 소가 많이 제멋대로 돌아 다니는 것입니다. 이 곳에서는 소는 신성한 물건이라고 해서, 때리거나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있으므로, 소들은 마음 놓고 다니는 것입니다.



# 새소식

## 미국 천문과학대(天文科學隊)가 온다

5월 9일날 나타나는 일식(日蝕) ...달이 해를 가리는 것)을 관측(觀測)하기 위하여, 미국 과학 연구대(科學研究隊) 두 개가 지난 3월 10일 워싱턴을 출발하였다.

그런데 그 중 한개는 우리 나라 중남 천안(忠南天安)으로 오고, 다른 한개는 중국 호남성 무강(湖南省 武岡)으로 갈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나는 일식이 보이는 곳은 아세아와 북쪽 미국의 서북부와 북쪽 대평양 등이요, 그 중에 해가 달에 가리워져 금태두리와 같이 되는 완전한 일식 즉 금환일식(金環日蝕)은, 이날 이른 아침에 인도양의 북동쪽에서 시작되어 실라(暹羅), 안남(安南), 중국의 남동쪽을 거쳐 우리 조선의 천안, 충북 제천(忠北 堤川) 근처와, 미국 워싱턴 서쪽 해상에 이르는 선(線)에서만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금환 일식을 관측하려고 미국 과학대(科學隊)가 오는 것인데, 천안 지방의 일식이 시작되는 시간

은 5월 9일 오전 8시 39분 9초부터라고 하며, 인천, 강릉, 대구, 목포, 전주 등, 여러 지방에서는 오전 9시 40분 내지 50분부터 일식이 시작되리라 하고 한다.

### 태양을 도는 새 유성

태양의 주위(周圍)를 아주 빠른 속도로 도는 새 유성(遊星)을 미국 텍사스대학의 천문학자(星學者)인 C. A. 와트킨 교수가 3월 7일 발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발견된 유성은, 직경(直徑)이 2마일(哩)이나 되며 보통 다른 유성류는 그 형상(形狀)이 다르다고 한다. 그리고, 이 유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8천만 마일되는 곳에 있으며, 지구의 궤도(軌道)보다 30 마일이나 안쪽에서 궤도를 돌고 있다고 한다.

### 소매치기가 자라에게 잡힌 이야기

소학생과 자라가 소매치기를 잡은 통쾌하고도 웃스운 얘기.

지난 3월 1일 권이라는 사람이 돈과 약에 쓰려고 한 장작을 함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문맹 문맹 전차를 탔는데, 그 가방 속의 돈을 노리고 뒤따라 온 소매치기가 전차 속에서 날카로운 칼로 가방을 찢고 손을 집어 넣으려 할 때, 마침 가방 속에 가차기 약이 잔뜩 오른 자라가 손가락을 짚 붙였다. 깜짝 놀라 손을 뺀 보아 손에서는 시뻘건 피가 모르고 묻져 나왔으나, 소매치기는 이별을 모르고 그대로 서 있을 때, 옆에 있던 소학생이 이것을 보고, "아저씨 손에서 피가 조금나와." 하고 떠들었기 때문에, 결국 가방 속의 자라한테 들켰다는 것이 알려졌다. 전차 속은 남매 없는 웃음 판이 벌어지고, 자라에게 잡힌 소매치기는 유치장 신세가 되었다고 한다.

### 영국과 불란서 사이에 해저(海底)터널

무시무시한 원자폭탄 일찌라도 조금도 까막없이 피하여 낼 수 있는 바닷속의 굴을 영불해협(英佛海峽)에다 관다는 말이 결국과를 탐서 두 나라 사이에 생겼다.

즉, 불란서의 크리네에서 영국의 포크스크로프까지, 23 마일이나 되는 굴을 파는 것인데, 그때 따라서는 물 밑으로 220 피트(呎)나 내려가서 파는 곳도 있다 하며, 굴 안에는 기차와 자동차도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 비용(費用)은, 약 2억 달러가량 될 것이라고 한다.

### 세계에서 제일 큰 련조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파코이산(山) 천문대에는, 요직을 세계에서 제일 큰 망원경(望遠鏡)을 설치했다고 한다. 이 망원의 직경(直徑)은 200인치, 무게는 5톤, 길은 60만 달러라고 하

###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

권력요는 소식에 의하면, 미국 의학협회장(醫學協會長) 에드워드·보우프 박사는 사람은 적어도 150년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개는 2살이 되면 완전히 성숙(成熟)하여 평균 12살까지 살고, 고양이는 1년 반만 성숙하여 8살까지, 말은 4살

에 성숙하여 25살까지 산다. 따라서 각각 동물들은 성숙한 그때부터 6배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은 육체적(肉體的)으로 20살에 성숙하게 되니까 평균 150년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니, 어떻게 된 셈인지 궁금한 노릇이다.

는데, 16 개의 바퀴가 달린 트럭도, 그것을 만든 유우목주(州)로 오닐그리의 유리 공장에서 실어 왔다고 하니 엄청나게 큰 것인 모양이다.

### 어린이 도서관

작년 12월부터 내부를 깨끗이 수리하기 위하여 잠시 쉬고 있던 국립도서관 아동열람실(兒童閱覽室)은, 지난 4월 1일부터 다시 문을 열기로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도서관은 남대문로 2가에 있으니 어린이 여러 분을 많이 이용할 수가 바랄라고 한다.

### ★반가운 소식★

“산에는 꽃이 피네……”라는 “산유화(山有花) 노래를 여러 분은 래더오에서 들어 아실 것이다. 이 노래는 우리 조선이 낳은 천재적 작곡가(作曲家) 김 순남(金順男) 선생님이 곡을 붙이신 것인데, 이 분께 민족 음악계(音樂界)에서 이 김 선생님의 음악을 듣고, 그 뛰어난 서주와 아름다움에 칭찬이 자자하다고 한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손 꼽는 교향악단(交響樂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에서 이 음악을 연주(演奏)한다고 하는데, 지휘(指揮)에는 유명한 지휘자 레오 스토크로프스키 선생이라고 한다.

### ★ ★ ★

현재 우리 남조선에 있는 각종 공장들은 시설 불충분, 원료(原料), 동력(動力) 등이 매우 부족해서, 마음대로 물건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중에서도 동력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는 이 때에, 무연탄(無煙炭) “랑카샤기관(汽機)”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는 반가운 소식.

즉 전남 광주(光州)에 있는 방직(紡織) 공장에서는 이 동력 부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늘 연구를 하여 온 나머지, 무연탄을 완전히 태우는 “랑카샤 기관”을 만드는 도리 밖에는 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약 4개월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한 결과, 노력한 보람 있어 드디어 지난 2월 28일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공장에서는 하루에 7톤의 석탄을 절약(節約)하게 되었으며, 머지 않아 화력전기(火力電氣)도 일으킬 것이라 한다. 그런데, 그 능력은 이 공장과 그리고 화순(和順) 탄광(炭鑛)에서 쓰는 전력(電力)을 채우기도, 또한 광주부(光州府) 일대에 1천 5백 키로의 전력을 보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 사람도 성공 못하였던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반가운 일이다.

무척 수고들 하셨습니다!

### “조선 말 큰 사건”

#### 축하회

일제에게 하마터면 빼앗길 뻔한 우리 말과 우리 한글! 우리는 우리 말과 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갖은 고초를 겪어 가며 끝까지 용감히 싸워 주신 조선어 학회 여러 선생님들에게 감사할 드리지 않으면 안된다. 선생님들중에는 그것 때문에 감옥 안에서 씀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도 두 분이나 계시는데, 그 괴와 땅이 묻혀서 된 것이 이번 나온 “조선 말 큰 사건”인 것이다. 그래서 조선 문학회 동맹(朝鮮文學會同盟)에서는 사건이 나온 이 때를 당하여, 무한히 수고하신 조선어 학회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영광(榮光)을 드리우고자 지난 4월 6일 서울 종로에 있는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조선 말 큰 사건”과 고이 을제 선생님이 남기고 가신 “포준 조선 말 사건” 간행(刊行)에 대한 축하회를 열었다. 이날 회는 조선어 학회 이극노 박사를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수천 문화인들이 모일 가운데, 정지용 씨의 사회로 시작되어 세 정대로 훌륭히 거행되었다. 그리고 끝으로 “조선 말 큰 사건”을 출판한 을유문화사(乙酉文化社)와 “포준 조선 말 사건”을 출판한 안문각(雁文閣)에 각각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우리 “소학생”에 다달이 삽화를 그려 주시는 김기창 선생님은 내외분이 모두 조선에서 유명한 화가이신데, 지난 3월 9일부터 4일까지 몇몇장산 시대 동화배달회에서

에서 두 분의 그림 전람회를 열어서 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조번덕 선생님은 조선 해안 경비대의 초대를 받아, 지난 3월 13일 서울을 떠나 진해(鎭海)로 가셨습니다. 향기로운 남쪽 바다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돌아오셔서 바다에 관한 포스터를 그리실다고.

○서울 국립 박물관 관장 김재원 선생님은 이달 초순에 미국에 가십니다.

○을석승 선생님이 관려하시는 노래 동무회에서는 그 노래 중부를 울간으로 했는데, 이번에 피아노를 사게 되어 모두를 좋아하신다고.



# 문 무 대 왕

황 수 영

우리들이 위대한 사람을 중심으로 사모하는 것은 우리들도 그 훌륭한 정신과 사업을 오늘에 본받아 보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물(人物)의 하나로 실리 30대의 문무대왕을 먼저 꼽고 싶습니다. 대왕께서는 실리 역사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시대에 낳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백제를 합쳐서 삼국 통일(三國統一)의 시초를 이룬 무열왕(武烈王)입니다. 대왕께서는 부왕(父王)께서 다 이루지 못한 뜻을 받들어, 온갖 힘을 다하여 북의 고구려를 물리치고 마침내 반도 통일(半島統一)의 거룩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고구려가 항복한 것은 왕의 8 년인데, 이 해(단기 3001년, 서기 668년)는 우리 나라 역사 위에서 가장 빛나는 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때부터 우리 나라는 한때 동쳐서 참된 의미

의 국가 생활(國家生活)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왕께서는 나라의 앞날을 깊이 걱정하시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와 문화를 베풀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해 왜나라(日本)에 대한 경계를 기울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왕께서 돌아가실 때 “내가 죽으면 곧 화장(火葬)을 해서 동해에 장사지내라. 그러면 나는 용이 되어서 우리 나라를 지키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동해에 있는 바위 위에 장사지내

고 (그 후부터 이 바위를 대왕암(大王岩) 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감은사(感恩寺)라는 절을 완성하여 왕의 복을 빌었습니다. 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천 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절 터에는 3층의 큰 돌탑(높이 약 10미터)이 동서(東西)로 우뚝 서 있고, 그 앞 바다 속에는 대왕암이 거처론 파도 속에서 뚜렷이 솟아 있습니다. 참으로 대왕의 그 역세 정신과 거룩한 공업(功業)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나라 역사 위에 찬란히 빛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은사 및 대왕암의 위치는 경주시 동쪽으로 약 80리쯤 떨어져 경주군 양북면 용당리(慶州郡 陽北面 龍堂里)라는 곳에 속하는 동해안(東海岸)입니다. (끝)



새로 나온 “아협”의 동화책

## 왕자와 부하들

조 풍연 꾸밈 (그림 김 의환)

국문 64페이지 ★ 정가 100원(지방송로 10원)

이 책에는 ▲왕자와 부하들 ▲장사의 머리털 ▲머리 일곱 달린 용 ▲광금새 ▲백합 공주 ▲술 방구터 ▲이렇게 여섯 가지 동화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화들은 모두 세계에서 소년난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한 종이로 인쇄도 또렷하고 김 의환 선생의 그림도 꼭 재미 있게 되었습니다.

방금 책사에서 파는 중이니 속히 구하여 보십시오.

兒協 發行

# 우리 말 도로 찾기

## (2)

イデメル—시마르다, 복다, 잘못  
 다.  
 イデナル—시달리다, 복기다,  
 잘못기다.  
 이스(椅子)—의자, 의자.  
 イチオウ(一應)—대체, 대강.  
 イワンヨウ(一生)—경생, 한결생,  
 한어.  
 イワンヨウケンメイ(一生懸命)—  
 한사모, 기쁘고.  
 イワタン(一旦)—한번.  
 イノコル(居候ル)—처져있기, (남  
 아있다, 처져있다.)  
 イノチガケテ—복습걸고, 복습내  
 놓고, 죽자구나라고.  
 イヒワケ(言譯)—번역, 경제.  
 イヤシクモ—그레도, 이데피어도,  
 적어도.  
 イヨイヨ(愈々)—더욱, 확실히,  
 마침내, 막장.  
 イリクテ(入口)—①들복, 들어가  
 는데. ②어구 (乙支路入口—을  
 직로 어구)  
 イロイロ(色々)—여러가지, 갖가  
 지로.  
 インチキ—속임수, 아바위, 험잡,  
 사기.  
 ウケツケ(受付)—접수, (접수처)  
 ウワン(窩シ)—베끼, 등본.  
 ウデマキドケイ(腕巻時計)—팔목  
 시계.

ウドン—밀국수.  
 ウラカヘシ(裏返)—뒤집음, 뒤집  
 기.  
 ウルタイ—귀찮은, 성가신, 귀찮  
 다, 성가시다.  
 ウワギ(上衣)—저고리, 양복저고  
 리, 옷매기.  
 ウワヂ(嚙)—소분, 중분, 풍설.  
 ウン(運)—수, 운수, 재수.  
 エノダ(櫓具)—피석감, 저고.  
 エンゾク(遠足)—원거닐, 소풍.  
 엔리코스(遠慮ス)—①스스머취  
 하다, 제면모다, ②어머취하다,  
 ③저협하다.  
 엔리코나크(遠慮ナク)—①적면  
 없이, 스스림없이, ②어머취말  
 고, ③저머취지말고.  
 오키도케이(置時計)—외중.  
 오히—아깝다, 애석하다, 가식  
 하다.  
 오히레(押入)—반침.  
 오테츠키가알—진상하다, 필학  
 하다.  
 오펜—모지전들.  
 오토메(乙女)—아가씨.  
 오버—외부.  
 오우세이(大勢)—어떤.  
 오미야타(御土産)—선물, 선사.  
 오세—주장오르.  
 오모하즈—불희애, 무심코.  
 오리즈메(折詰)—나무도사마.  
 오로시우(御賣)—도매.  
 고히코우(御申)—귀중.  
 카이단(階段)—①층대, 층층대,  
 ②계곡.  
 카카린(係員)—빛아치, 말은  
 이.  
 카카토메(書留)—증거, (登記) 을  
 씌.  
 카카토리(書取)—받아쓰기, 베끼  
 기.  
 카카리(限り)—한, 들.  
 카카카(閣下)—님, 작하.

데킬카카리—필수 있는대로.  
 카카부치(顔)—물, 때.  
 가카우(學友)—같은, 같은부,  
 학우, 동업.  
 카카키리(貸切)—두께 (차), (복  
 차).  
 카카야(貸家)—셋집.  
 카카요(偶券)—군데, (三個所—세  
 군데).  
 카카(型)—틀, 들, 판.  
 카카, 클리시—떡막하다, 거북하  
 다.  
 카카부—립.  
 카카리—계법, 계.  
 카카빈—수며, 가방.  
 카카스—가마너.  
 카카보코—생선복.  
 카카모리(剃刀)—면도.  
 카카—칼라.  
 카카세(偽替)—환, (환부치다, 환  
 샐다).  
 카카도요우(勘定)—셈, 셈하다.  
 카카즈메—동조립.  
 카카테라—도둑들.  
 카카반(看板)—보판판, 보판  
 판.  
 카카트리—모미취 (미취 맞수  
 다).  
 카카인트—꼭바로, 단정히.  
 카카케(氣付)—알림.  
 카카테(切手)—우표, 표.  
 카카트(吃度)—꼭, 정녕.  
 카카부(切符)—표, 차표.  
 카카크와나이—미취에 안맞는다.  
 카카쯔—뒤받음.  
 카카바시—소창.  
 카카분(氣分)—심기 (心氣), 기  
 분.  
 카카치(氣持)—심기, 기분.  
 카카쿠—반대로, 거슬러, 치거  
 슬러.  
 카카우지(給仕)—사환.  
 카카우샤(牛車)—말구지, 우차.  
 카카우구(境遇)—경우, 지경.  
 카카카헤—바꿔매기. (계속)

# 少年三国志

박 태원 · 지음 \* 김 기장 · 그림



## 제 3 장 의 대 조 (衣帶詔)

### 四 길 태의(吉太醫)

그 뒤로 동승은 서울에 있는 동지(同志)들과 자주 만나. 조 조 없앨 일을 의논하였다. 그러나 도무지 좋은 계교가 없다.

그러는 사이 흐르는 세월만 몇없이, 해가 바뀌어 새해 초 하루를 맞이 하였다.

이 날, 궁중에서 모든 신하가 천자에게 새해 문안을 드릴 때, 조 조의 교만하고 방자한 품이 전보다 더욱 심한 것을 보고, 동승은 마침내 화기(火氣)가 가슴에 차서 병이 되었다.

천제는 그가 병으로 자리에 누웠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즉시 태의(太醫)를 내어 보내시켰다.

이 태의는 낙양(洛陽)사람 길 태(吉太)로, 자는 칭평(稱平)이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길 평(吉平)이라고 부르나, 본 당시의 명의(名醫)다.

길 평이 동승에게로 나와 잠시도 결을 떠나지 않고 약을 쓰며 병자의 동정을 살피어 보니, 때때로 남 몰래 한숨을 쉬고 하는 것이, 정녕코 마음에 근심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길 평은 감히 그 까닭을 물어 보지 못하였다.

그러자 정월 보름 날을 당하여, 동승은 길 평과 함께 술을 먹고 취하여 자리에 눕더니, 그대로 곧하게 코를 끈다.

길 평이 그 결의 교의에 얹아 지켜 보려니까, 동승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갑자기 잠고대로

“이놈, 조 조야! 네 달아나지 말아라!” 하고 웅얼다.

길 평은 즉시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네가 조 승상(曹丞相)을 해치려 하느냐?”

그 소리에 동승은 놀라 깨며 길 평을 보고 두려워 어

찌 할줄을 모른다.

이 때 길 평은 조용히 말하였다.

“장군은 겁내지 마십시오. 제가 비록 일개 의원에 지나지 않으나, 꿈에도 한(漢)나라들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장군은 무더 지기 진정을 말씀하십시오. 만약 제 몸이 소용 되신다면, 설혹 멸문(滅門)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양 압겠습니다.”

그러나 동승은 그 말이 꼭 믿어지지 않았다.

“그게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요?”

길 평은 그 자리에서 손가락을 깨물어 맹세를 하였다. 그제야 동승은 다시 의심하지 않고, 감추어 두었던 의대 조를 내어다 보여고 기만히 말하였다.

“우리 일꾼 등지들 가운데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유 비와 마 충뿐인데, 그들을 모두 떨



지방에 떨어뜨리고, 서울에 남아 있는 우리들 만으로는 도무지 좋은 도리가 없어, 그대 내가 과거가 며칠 이렇듯 떨어질지도, 품오 나자 길 정이 말한다. "이 일은 어찌 대감께서 그렇게 근심하여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조 조의 목숨이 길 정의 목숨과 제 손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그대 어찌하는 말씀이오?"

"조 조가 배양 부풍(別風)을 알아, 병만 나면 저를 불러다가 약을 쓰는 터이니, 이 앞으로 다시 저를 부르는데도 곧 물어 가서, 독약(毒藥) 한 봉만 쓰면 제가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 승은 그 말을 듣자, 마치 구름을 헤치고 빛을 본 듯, 달달하던 가슴이 확 터어 그 절로 병상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 날 밤, 집 안에 조그만 일이 하나 일어났다. 즉, 제 모 판에 도둑이 든 것이다.

물 승이 집안 사람들을 제워 불을 밝힌 다음, 도둑을 잡아 놓고 보니, 그 것은 뜻밖에도 집에서 부리는 중 놈 길 정 경 동(秦慶童)이라는 자다. 그는 크게 노하여 이놈을 빈방 속에다 가두어 두고, 날이 밝으면 죄를 다스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누가 생각이나 하였으랴?

경 동이는 밤이 깊기를 기

다리어, 결박한 철사를 끊고 남을 넘어, 그 절로 바로 조 조 부 중(府中)으로 들어 가서 고하였다.

"급히 어루어야 할 비밀한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조 조가 곧 밀 실(密室)로 불러 들어 불자, 길 정 경 동은 아뢰었다.

"얼마 전에 왕 자 복·오 자 만·충 적·오 식 동 명 사 람이 저의 주인을 찾아 와서 무엇인지 비밀한 의논이 있었사온데, 소인이 보기에는 아마도 송 상을 도모하려는 눈치 같사옵고, 또 바로 어찌 저에게는 대 의 길 정이 손가락을 제갈아 무슨 일인지 명세를 짓는 말이 매우 수상하와요."

물오 나자, 조 조는 그 놈을 아무도 모르게 자기 부 중에다 감수어 두었다.

한편, 물 승은 날이 새어 죄를 길 정 경 동이 도망하고 있

는 것을 알았으나, 설마 조 조에게로 가서 그러한 말을 고하였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라, 그대로 내 버려 두고, 다시는 간 곳을 알아 보려고도 안하였다.

이튿날, 조 조는 부러 무 풍이 났다고 말하고, 길 정 경 동을 불러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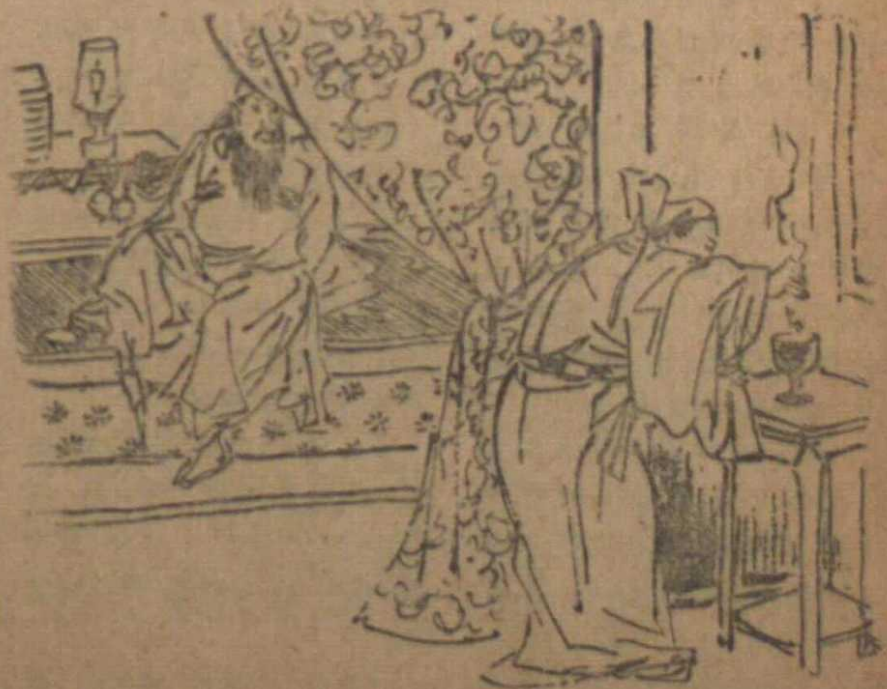
길 정은,

(이 놈이 오늘은 내 손에 죽고 마는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독약 한 봉지를 소매 속에 감수어 넣은 다음에 부 중으로 들어갔다.

조 조는 정상 위에 누어 있다가,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곧 약을 쓰라고 눈부하였다.

길 정은 약탕관을 가져오라 하여 약을 대피다가, 문때 독약을 다시 들고 조 조 앞으로 갔다.



그러나 조 조는 그 약이 수  
상한 것인 줄을 짐작하는 까  
닭에, 약 그릇을 받아서 앞에  
다 놓아 둔 채, 좀처럼 마시  
려고 안한다.

길 평은 권하였다.

“어서 더운 김에 드십시오.  
땀을 죽 내시면 곧 나질 것  
입니다.”

조 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너도 글을 읽었으니 받드  
시 예절을 알 것이다. 임금이  
병이 나서 약을 쓰려면  
선하가 먼저 맛을 보고, 아  
비가 병이 나서 약을 쓰려  
면 자식이 먼저 맛을 보는  
법이다. 너는 내 심복(心  
腹)이니, 먼저 맛을 본 다  
음에 내게 권하는 것이 이  
처에 옳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듣자, 길 평은 벌  
써 일이 발각된 줄을 눈치채  
고, 즉시 앞으로 달려 들어,  
한 손으로는 조 조의 귀를 붙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약 그  
릇을 들어 우격으로 그 입에  
다 퍼부려 하였다.

그러나 물론 그렇게 하여  
서 될 일이 아니다. 조 조는  
손으로 약 그릇을 쳐서 마룻  
바닥에 떨어뜨리고, 소리 질  
러 사람을 불러서 길 평을 잡  
아 내리치 한 다음, 땅에다 굴  
어 앉히고 물었다.

“이제 아마 네 마을으로 한  
일은 아닐 것이다. 대체 누  
가 시켰는지 이름만 바로  
대면, 네 죄는 용서하여 주  
마.”

길 평은 소리를 높여 꾸짖

었다.

“너는 임금을 업신여기고  
나라를 망치는 도둑놈이다.  
세상 사람이 모두 너를 죽  
이지 못해서 이를 가너터  
에, 어찌 나 하나만 그 마  
음이 없겠느냐?”

조 조는 그래도 다시 두 번  
세 번 캐어 물었다. 그러나  
길 평은 더욱 소리를 높여 꾸  
짖는다.

“남의 부탁을 받고 한 일  
이 아니다. 내가 너를 죽이  
려다 못하고 그만 이 모양  
이 되었으니, 너는 어서 나  
를 죽여 원한을 풀어라.”

마침내 조 조는 크게 노하  
였다. 즉시 군사를 시켜 곤  
장(棍杖)을 치라고 하니, 두  
시각 동안 독한 매질에 온 몸  
의 가죽은 더지고 살은 찢어  
지며 피는 흘러 심장에 흥근  
하다.

조 조는 너무 때려서 아주  
죽이고 보면, 나중에 대결(對  
質)할 길이 없을 것을 염려하  
여, 옥에다 갖다 가두게 하고  
그 이튿날, 크게 잔치를 베풀  
다음에 모든 대신을 그 자리  
에 청하였다.

동 승 한 사람만은 병이라  
핑계하고 나오지 않았으나,  
왕 자복의 무리는 도리어 조  
조가 의심할까 두려워, 모두  
참석(參席)하였다.

술이 두어 순배 돌아, 조 조  
는 길 평을 끌어 들이라 하  
여,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서 다시 한 차례를 매질하였  
다.

너무나 지독한 매질에 견

더어 나지 못하고, 길 평은 그  
대로 땅 위에 혼절(昏絶)하여  
버렸다.

“조 조가 곧 그 얼굴에나  
찬 물을 뿌게 하니, 얼마만  
에 길 평은 깨어나자,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며 꾸짖는  
다.

“네 일른 나를 죽이지 않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려  
하느냐?”

조 조가 물었다.

“이번 일을 공모(共謀)한  
자가 여섯이라고 하니, 그  
럼 너까지 넣어서 일곱이  
나?”

그 말에, 왕 자복·오 자관  
의 무리 네 사람은 서로 얼굴  
만 돌아다 보며, 마치 바늘  
방식에 앉았는 것 같았다.

조 조는 한 편으로 매질하  
며, 또 한 편으로 찬 물을 끼  
얹으며, 기어코 공모(共謀)를  
받아 보려 하였다. 그러나 길  
평은 배에 못이겨서 동지들을  
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그저  
한결 같이 저 혼자 생각으로  
한 일이라고 고집하였다.

조 조는 잔치를 끝내고, 다  
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  
가게 한 다음, 오직 왕 자복  
의 무리들만 남아 있게 하였  
다.

네 사람은 마음이 놀라고  
가슴이 떨렸다.

조 조는 물는다.

“네 사람이 동 승과 비밀히  
의논하였다는 것이 대체 무  
엇이요?”

왕 자복이 대답한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걸 정이가 내지 복약을 쓰  
며란 것이 물 술이 시련 일  
이 아니면 누구랄 말이오  
?”

“정말 말씀이지, 저희는 모  
루시 모르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자복(自服)  
물을 한다면 오히려 용서하  
여 주겠지만, 일이 붙어난  
다음에는 모루시 인정을  
부지 않을 것이니 알아시  
시오.”

“정말 저희는 아무 것도 모  
릅니다.”

조 조는 즉시 네 사람을 잡  
아서 옥에다 가두게 한 다음,  
그 이튿날 물 술을 그의 집  
으로 찾아갔다.

“어제 잔치에는 어찌하여  
나오시 않으셨소?”

조 조는 대답을 물어보며  
고 잔 마녀 물었다.

“몸이 그저 성하지 못하여  
참례하지 못하였습니다.”

물 술이 대답하자, 조 조는

입가에 비웃음을 띠고,

“장군의 명판을 내가 다 알  
고 있소. 나라 근심을 너무  
해서, 그대 생진 병아 아니  
오?”

물 술이 깜짝 놀라 대답을  
못한다. 조 조는 다시 물었다.

“장군은 걸 정의 일을 아시  
오?”

“모릅니다.”

“뭐? 모른다고?…….”

“조 조는 한 번 코웃음 지  
고, 곧 사람을 시켜 걸 정  
을 데려 오라 명하였다. 일  
마치나지 않아 옥졸(獄卒)  
스무 명이 걸 정을 결박시  
어 끌어다가, 섬들 아래 끌  
었다.

조 조는 다시 물었다.

“누가 널더러 나를 약 먹여  
죽이라 하더나?”

걸 정은 여전히 눈을 부릅  
뜨고 조 조를 노려 보며 꾸짖  
는다.

“하늘이 널더러 역적을 죽

이라 하셨다.”

조 조가 노하여 다시 매질  
을 하게 하니, 건신의 살이 모  
루 패어져, 이제는 더 매질 곳  
이 없다. 조 조 곁에가 앉아  
이 광경을 보는 물 술은 그 마  
음이 바로 칼로 에는듯 싶었  
다.

“조 조는 매질을 멈추게 한  
다음, 다시 물는다.

“내가 본래 손가락이 열 개  
이었는데 어찌 하여 아홉  
개 밖에 안 남았느냐?”

“내가 이로 깨물어 역적을  
죽이기로 맹세하기 때문이  
다!”

조 조는 옥졸을 시켜 걸 정  
의 남은 손가락 아홉 개를 모  
조박 잘라 버리게 한 다음,

“이놈! 어디 또 한 번 맹  
세를 하여 보아라.”

그러도 걸 정은 굴복하지  
않는다.

“아직 입이 남았으니 너를  
삼킬 수 있고, 혀가 붙어 있  
으니 너를 육할 수 있다.”

조 조는 옥졸에게 명하여,  
“네 일흔 저놈의 혀를 뽑  
아 버리라.”

하고 분부하였다.

이 말을 듣자, 걸 정은 황  
명히

“가만 있거라. 이제는 더 견  
딜 수가 없어 바른대로 불  
터이니, 묶은 것이나 참판  
풀어 다오.”

결박한 것이 풀리자 걸 정  
은 몸을 일으키어 벌떡 전사  
제신 매질을 바라보고 질을  
한 다음에,

“신이 나라를 위하여 역적

우리 학교 교가

한양성 함북만에 우뚝 솟아서  
긴 내리 자랑하는 수송이로세  
북악산 높은 봉에 푸를 소나무  
장할손 수송아이 기상이로다  
백워라 튼튼하라 씩씩하여라  
이 감산 메고 나갈 우리 아넌가

무궁화 이 동산에 꽃을 피워서  
새 역사 꾸며 내일 수송이로세  
세종로 넓은 길에 트인 저 하늘  
빛날손 수송아이 앞날이로다  
착하라 참되거라 아름다워라  
세계를 밀고 나갈 우리 아넌가

(서 황석 지음)

참으로 반문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말을 할 날이고 쓰이를 많이 쓸  
니다. 답답이 꼬르륵 꼬르륵 하  
면 말이 가서 말을 피내을 때, 제  
기 있습니다. 말을 피내다가는 날  
자를 써서 어느 날 누구 말이 남  
았다고 모를 써서 잘 씁니다.

작문 새해

5회 이 용희

나도 이제 열 네살. 어른들이  
우리를 보려는 하시면 "너희들은  
것을 보면 참 세력이 따르다"는  
말을 아무 생각도 없이 들어왔  
는데, 이제는 차차 커가면서 나도  
어려운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된 것  
같다. 겨울 앞에 서서 커가는 나  
의 모습을 스스로 볼 때 어떤 아  
역의 세계를 떠나서 정년의 세계  
로 들어 가게 되는 나를 생각하

게 되고, 어른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며 제발계 천다. 우리 집에서  
는 변변치는 없으나마 삼피까지  
를 해서 이번 음력에는 아무 것  
도 차린 것이 없다. 그러나 거미  
에 모두 문을 닫은 집으로 보고  
서등지고머리 고운 치마로 단정  
한 아이들, 그리고 세르게 자러  
되되낙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역시 새 해모구나.....하는  
제모든 감격에 안팎될 수 없다.  
나로서는 국민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될 이 해다. 누가 뭐라  
해도 즐거운 기쁨과 아울러 이제  
는 어린 아이 같아서는 안된다는  
나에 대한 책임감이 가슴 속에 뿌  
리 박혀지고 있음을 알았다. 해마  
다 한 번 맞이하는 설날, 내가 국  
민 학교에 들어 갈을 때수기 시  
작하여 벌써 다섯번 새 해를 맞  
는 기쁨을 맛 보았고, 이  
번이 여섯 번째이다.

그리고 국민 학교 시  
때에는 다시 맞이할 수  
없는 이 새 해임을 생각  
할 때, 무엇인지 아파워  
서 자꾸자꾸 이 새 해의  
마음을 감지해 두고 싶  
다. 내 수이 동생이 고운  
웃을 입었다. 그리고 피  
도 좋아한다. 언니들도

석예술품

습자 5회 3 김 우중

가끔 같이 모여서 논다. 나도 같  
이 놀면서 이 해에는 언니들과  
같이 큰 어른 같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새 해, 중학생이 될 이 새 해  
에 나는 언니들이 얘기하던 희망  
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  
아지는 것 같고, 혼동한 사람이 되  
어야 한다는 결심을 세우고 있다.

다음 57호에는 서울 정충  
학교지를 내기로 되었습니  
다. (전집실)



도화 5회 4 양 회숙

- ▲동지(同志).....서로 뜻이 같 은 사람.
- ▲화거(火氣).....대단히 노란 거운.
- ▲태위(太尉).....왕실의 벼슬 보는 의사.
- ▲명위(名醫).....병을 잘 보치 는 의사.
- ▲결문(結門).....한 결함을 따 죽어 일러는 것.
- ▲주풍(州風).....바람으로 여 미가 아픈 병.
- ▲밀실(密室).....비밀한 방.
- ▲도모(圖謀).....알고도 할 일 의 수단 방법을 생각하는 것. 여 거서는 죽이려 한다는 뜻.
- ▲주적으로.....적적으로, 무리로.
- ▲근장(根杖).....죄인의 불기 문 때리는 형구(刑具).
- ▲대질(對質).....서로 대 면을 서서서 결단인가 거짓인가를 판 단하는 것. 무릎맞춤.
- ▲혼절(昏絶).....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것.
- ▲자부(自服).....자기가 저승 직을 바로 말하는 것. 자백(自白) 이 같다.
- ▲수호(護守).....육체 가진 죄 인을 지키는 사람. 지금의 관수(看守).
- ▲감감관(監官).....대질을 지 키는 관원.
- ▲단수(團束).....선제하는 것. 결제하는 것.

# ★ 그림 속 마음 ★



**염불에는 마음이 없  
고 젓밥에만 마음이  
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이  
라든지 공부에는 마음이 없고  
알지 못하는 데다 정신을 판단  
가 또는 다른 소용없는 것이  
나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한 것  
으로, 모든 것에 대하여 그  
일에만 정신을 기울이고 충실하  
라고 비꼬아 하려는 말.

**밀는 나무에 곰이 핀  
다**

공장이 안 되거나 하고  
없었던 나무에 곰팡이가 피었  
다는 말로, 그 사람만이 하고  
있었던 것이, 뜻과치 않은  
일을 일으켰다는지 또는 자기  
를 속이고 나쁜 일을 하였다  
든지 하겠을 비 이런 말을 씀.



**안 벼 치고 나팔 벼  
친다**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꺼이꺼지고 이쪽에서 저쪽  
사람 욕을 하고 저쪽에서  
저쪽 사람 욕을 하는 것  
을 말한데, 우리는 겉때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개 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어디나 많이 있는 게똥도  
딱할 필요하여 쓰려고 하면  
없다는 말. 평소에 아주 흔하  
여 몰아 보려고 하면 찾을  
때가 있어서 찾으려면 없다는  
뜻으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말함이다.



(그림·김 의환)

김 용환 선생 그림

## 로 끼 전

값 40원·송료 7원

유명관 "로끼와 자라 이야기"  
를 만화로 그린 것입니다.

서울 鍾路 3街 永保빌딩  
乙酉文化社

# \* 우리 학교 작품 \*



서울의 한 가운데 건립된 이 학교를 주로  
주축 시 있는 이 학교는, 지금부터 36  
년 전 시기 1920년 5월에 개교(開校)  
하였습니다. 지금 이 학교에는 여러군  
정성으로 공을 아끼고 교육에 바치신 선  
생님 선생님과 고강 장학사 선생  
님 비롯하여 40 명이나 되는 많은 교  
사님 계시니, 세 나라의 훌륭한 학교  
이 되려고 2688 명의 어린이가 열공  
중이라고 있습니다. (기자)

## 제 3회 서울 수송 학교치

### ★나의 당부★

수송 학교 서 영호 선생

만민년의 오랜 역사와 빛나는  
문화를 가졌던 우리 나라가, 퍼지  
36년 동안 재적의 침략을 받아  
왔으나 마침내 우리 나라는 해방  
이 되어 금년(今年)이야말로 우리 민족  
에게는 희망과 기쁨에 넘치는 해  
라고 하였습니다. 국제연합에서  
는 우리 나라의 독립을 도우려고  
"조선 위원단"을 보내어 방금 선  
술에서는 각국 대표들의 회회가  
날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  
나 우리는 우리의 독립을 이바한  
분들에게만 달기고 입고 있어서  
는 안되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은  
우리의 힘으로 찾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였습니다. 어린이 여  
러분! 우리 나라가 잘 되고 못 되  
는 것은 어린이 여러분의 두 어  
께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무거운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  
려면 먼저 섹섹하고 튼튼하며, 정  
직하고 슬기로우며, 부모님과 선  
생님들의 말씀을 잘 지켜서, 어느  
나라 어린이에게도 지지 않는다  
는 굳센 결심으로 공부와 운동 그  
밖에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여 활  
동한 어린이가 되어 주기를 충실  
으로 바라 마지 않습니다.

### 동요 제비

5의 2 배 명승

제비들의 노래는  
끝지마는요  
너무 빨리 노래하여  
알지 못해요

말뚝줄에 앉아서  
노래하며는  
내동생은 잘한다고  
손뼉치지요

손뼉소리 듣고서  
노래하던 제비는  
월-월- 날아서  
달아납니다.

### 동요 병아리

6의 1 김 윤기

삐악 삐악 병아리  
노랑 병아리  
엄마 품에 꼭 안겨서  
잠을 자다가  
깨며는 또다시  
삐악 삐악 삐악

삐악 삐악 병아리  
깜장 병아리  
엄마 품이 "꼬꼬"하고  
부르노라면  
모두 모두 모여서  
삐악 삐악 삐악



### 작문 우리집 닭

2의 5 임 대일

우리집 닭은 병아리 때부터 세  
각기 입자를 꼭정하여 놓았습니  
다. 수닭은 아버지 닭, 노랑 닭  
은 우리 동생 대일이 닭, 암스  
고 품은 닭은 내 닭, 깜장은 호  
순이 닭, 흰 닭은 백일이 닭, 꼬  
망이 노랑 닭은 장난 아기 대일이  
닭으로 꼭정했던 것입니다. 그  
때 요사이 닭이 알을 낳기 시작  
하여 내 닭이 알을 제일 잘 낳  
게 육질쟁이 대일이는 내 닭을 제 닭  
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에 우순이의 깜장 닭이 매일 알을  
잘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  
일이가 요새 와서는 깜장 닭을 제

우리 학교 교가

한양성 함북만에 우뚝 솟아서  
긴 내리 자랑하는 수송이로세  
북악산 높은 봉에 푸를 소나무  
장할손 수송아이 기상이로다  
백워라 튼튼하라 씩씩하여라  
이 감산 메고 나갈 우리 아닌가

무궁화 이 동산에 꽃을 피워서  
새 역사 꾸며 내일 수송이로세  
세종로 넓은 길에 트인 저 하늘  
빛날손 수송아이 앞날이로다  
착하라 참되거라 아름다워라  
세계를 밀고 나갈 우리 아닌가

(서 황석 지음)

참으로 반문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말을 할 날이고 쓰이를 많이 쓸  
니다. 답답이 꼬르륵 꼬르륵 하  
면 말이 가서 말을 피내줄 때, 제  
기 있습니다. 말을 피내다가는 날  
자를 써서 어느 날 누구 말이 남  
았다고 모를 써서 잘 씁니다.

작문 새해

5회 이 용희

나도 이제 열네살. 어른들이  
우리를 보려는 하시면 "너희들은  
것을 보면 참 세력이 따르다"는  
말씀을 아무 생각도 없이 들어왔  
는데, 이제는 차차 커가면서 나도  
어려운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된 것  
같다. 겨울 앞에 서서 커가는 나  
의 모습을 스스로 볼 때 어떤 아  
역의 세계를 떠나서 청년의 세계  
로 들어 가게 되는 나를 생각하

게 되고, 어른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며 제발계 천다. 우리 집에서  
는 변변치는 없으나마 삼피까지  
를 해서 이번 음력에는 아무 것  
도 차린 것이 없다. 그러나 거미  
에 모두 문을 닫은 집으로 보고  
서등지고머리 고운 치마로 단정  
한 아이들, 그리고 예쁘게 차려  
되되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역시 새 해모구나.....하는  
제모든 감격에 안팎될 수 없다.  
나로서는 국민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될 이 해다. 누가 뭐라  
해도 즐거운 기쁨과 아울러 이제  
는 어린 아이 같아서는 안된다는  
나에 대한 책임감이 가슴 속에 뿌  
리 박혀지고 있음을 알았다. 해마  
다 한 번 맞이하는 설날, 내가 국  
민 학교에 들어 갈을 때부터 시  
작하여 벌써 다섯번 새 해를 맞  
는 기쁨을 맛 보았고, 이  
번이 여섯 번째이다.

그리고 국민 학교 시  
때에는 다시 맞이할 수  
없는 이 새 해임을 생각  
할 때, 무엇인지 아파워  
서 자꾸자꾸 이 새 해의  
마음을 감지해 두고 싶  
다. 내 수이 동생이 고운  
웃을 입었다. 그리고 피  
도 좋아한다. 언니들도

석예술품

습자 5회 3 김우중

가끔 같이 모여서 논다. 나도 같  
이 놀면서 이 해에는 언니들과  
같이 큰 어른 같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새 해, 중학생이 될 이 새 해  
에 나는 언니들이 얘기하던 희망  
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  
아지는 것 같고, 혼동할 사람이 되  
어야 한다는 결심을 새로이 한다.

다음 57호에는 서울 정충  
학교지를 내기로 되었습니  
다. (전집실)



도화 5회 4 양희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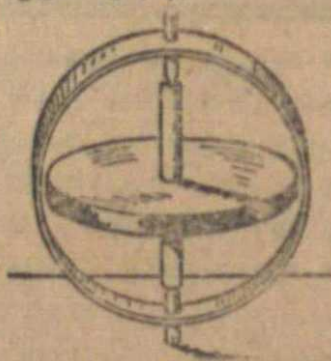
**가로 세로 도는 팽이**

재료…… 넓이 1mm 가량 되는 양철, 유성기 바늘 2 개, 굵은 철사 조금, 1원 장난감에 붙은 바퀴 1 개.

만드는 법…… 양철로 원(圓)을 만들고 서로 마주 대하는 원주(圓周)에다 바늘이 들어갈만한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나 이 원의 직경(直徑)은 바퀴가 크면 따라서 크게, 작으면 작게 해야 합니다. 다음에 바퀴를 다는데, 이 때 바퀴 가운데 밖은 막대기 양쪽에 바늘

끝이 닿게 하는데, 빠지지 않게 조금 오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바늘이 양철에 들은 구멍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노는 법…… 끈을 막대기에 감고 양철 원에 손을 대어 꼭 잡아 다니며 끈을 풀으면 힘차게 팽이가 돕니다. 그것을 그대로 책상 위에 세워도 되고, 바늘과 바늘에 손을 걸고 팽이를 옆으로 누어도 좋지요. 얹고 돕니다.



**◎ 떠는 그대**

선생... 조선의 인구가 몇이나?  
생도 A... 3천만입니다.  
생도 B... 틀립니다. 2천 9백 9십 9만 9천 9백 99 명입니다.  
선생... 어떻게 그러냐?  
생도 B... 어제 우리 동네 사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까요.  
선생... 러히...? (서울 돈암교 4의 3 신 광휴)

**◎ 답 모이**

아들... 어머니 왜 답 모이를 안해요?  
어머니... 달걀을 안받니까 그렇지.

아들... 그럼 어머니도 아기를 안받니까 밥 먹지 말아요.  
어머니... 뭐이 어쩌구 어찌!  
(서울 광희교 5년 김 학만)

**◎ 그렇기는 하나?**

정류장에 막 걸려한 전차 속에서 노인... 아! 여기가 어디요?  
옆의 신사... 여기는 전차 속이요.  
노인...? (서울 남산동 정 순일)

**◎ 소 리**

참남이... 까마귀는 왜 짹짹 우니?  
수남이... 까마귀니까, 까짜만 때가 지고 그러는거야.  
참남이... 그럼 왜 좋은 "땅" 그러니?  
수남이... 그것은 "종" 그러면 적어 종알이 날아오는줄 아니깐 "땅" 그러는거야.  
참남이...? (서울 중로교 6의 1 이 창근)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무엇이든 잘 알아 뚝수실하는 소문을 들으려 들었나 봐요. 좋은 옷은 잘 입고도 아무 옷은 차우만 짓는 줄은 모르시겠나? 하하 할리엔더 대답하십시오. 잘 합니다. (서울 상신교 6년 조 장재)

(답) 이자만아, 그것은 잘 했을지도 몰라. 이 마음부터는 조심해 줄게(최희박사)

(문) 최희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뭘 하는 박사님 존을 특별히 내 드리고 하는데, 가면서 수물을 파고 가는게 무엇일까요? (서울 상신교 6년 유 정현)

(답) 어보게 그때 나를 맛깔아도 분수가 있지 그까짓 것을 팔나. 그것은 지 팔이 구멍 하나! 놀았나?(최희박사)

(문) 박사님 생년! 저를 잊었습니다. 하늘에 내가 배겨 있는데 무엇일까요? 할리엔더. (서울 상신교 6년 박 연희)

(답) 무지개.

술게, 편지, 땅 게, 화하! 왜 저 데도 놀았나? (최희박사)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럼 하나 들었습니다. 서상재는 무엇이든 짓는 줄은 모르시겠나? 하하 할리엔더 대답하십시오. 잘 합니다. (서울 상신교 6년 유 정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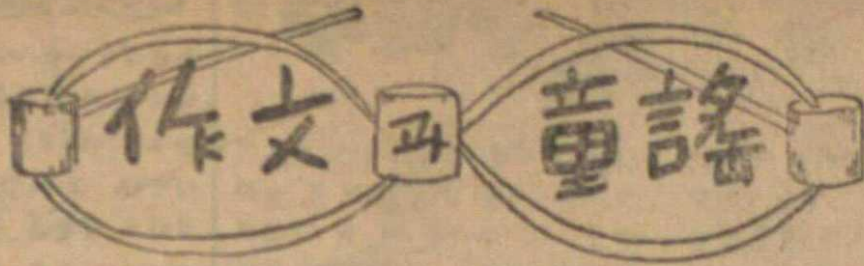
(답) 별별이 간 수가 별별이 많을지. 내가 갈게 알아 뚝수실 가와 지레가 풀 인히 존자 일어났다 놀았나? 하 할리엔더, 그것은 그럴까 하도 하하는 줄은 모르시겠나? 하하 할리엔더 대답하십시오. (서울 상신교 6년 유 정현)

(문) 최희박사님! 어떤지 제가 박사님을 묻고드리고 싶습니다. 뚝수실 따위 이따위 볼이고 놀리가는 것이 무엇? (서울 상신교 6년 유 정현)

(답) 피상한 문제도 다 있구먼, 그러나 나쁜은 어렵잖아, 소 신적해 나도 그것으로 놀았다네, 편이지겠가. (최희박사)



소학생은 다들 지어 보내시라



제 2 번

집

★ 상금은 모두 5만원. 따로 학교상이 있다 ★

우리 "아침"에서는 해방 후 세 번째로 여러 분의 작문과 동요를 모읍니다. 제목은 작문과 마찬가지로 지정하지 않겠으니 무엇이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조금도 꺼리낌 없이 마음 먹은 그대로 지어 보내시라.

상

- 특등 2명에게 각각 상품과 상금 5,000원씩.
- 우등 10명에게 각각 상품과 상금 2,000원씩.
- 입선 20명에게 각각 상품과 상금 1,000원씩.
- 이 밖에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내신 학교에는 따로 학교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아 두실 것

- ★자격은 남조선에서 현재 국민학교에 다니는 소학생이어야 합니다.
- ★작품은 소학생이 자기 혼자서 지은 작문과 동요에 한합니다.
- ★제목은 마음 대로 하고 길이는 작문에 관하여 1,000 자 안으로 써야 합니다.
- ★보낼 작품에는 자기의 이름과 나이, 학교, 학년을 꼭꼭히 적을 것.
- ★보낼 곳은

서울市 鍾路 二街 承保會堂內  
朝鮮 兒童 文化 協會

- ★작품은 되도록 학교에서 모아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봉에는 빨간 잉크로 "협상 작품"이라고 할 것.)
- ★기한은 1948년 5월 20일 까지 도착되도록.
- ★발표는 1948년 6월 1일 각 신문과 "소학생" 6월호.
- ★응모 작품은 정리의 형편상 일체 돌려 보내지 않으며, 당선 작품의 판권은 "아침"소유로 합니다.
- ★글쓰실 분—李 秉波 선생, 張 志暎 선생, 李 翺昇 선생, 鄭 芝溶 선생, 皮 千得 선생, 尹 石重 선생, 趙 豐衍 선생, 이렇게 일곱 분입니다.

朝鮮 兒童 文化 協會

# 소학생 구락부



★선생님이나 아버지 어머니 그 밖의 어른들에게 배우고 온 말과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할 일이지만, 그와 함께 우리들끼리의 정립과 생활을 서로 이야기하고, 보고하고, 힘을 모아 주고, 격려해 주며,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내일을 꾸미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믿어 있는 아직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다른 동무들은 때때 무엇을 생각 하고,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궁금한 일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어야 마음과 지식이 훨씬 넓어질 것이다.

★우리의 "아름"에서는 이번의 특우 제 1회 "작문과 풍요"를 널리 모집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은 같은 정지하게 거짓 없이 누구나 말할 수 있게 적어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같은 글이란 아무나 지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모르나, 정지하게 거짓 없이 알기 쉽게 쓴다는 것은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심 은경)

▲"소학생"을 걸머주시는 여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학생" 1호부터 54호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선생님 몸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서울 수송로 6의 1 김 풍관)

▲"소학생"을 위하여 알마다 애쓰시는 기자 선생님 모두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소학생" 10월치에 난 "천문로실" 22페이지 위에서부터 10페이지—11페이지까지 사이에 든 ",000중에 999까지 합성입니다."라고 있는데, 이 ",000중에"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요? 골가르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 일신로 탁 중철)

▲그것은 인적이 잘못 된 것입니다. 1,000 중 999까지라는 것이 1자가 빠진 것입니다. (기자)

▲편견국 여러 선생님 주운 저를 동안 안녕하십니까? 어느곳 불이 왔지요? 저는 매달 "소학생"을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재미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해서 그치지 않고 오래오래 내어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작문을 보내오니 잘 지도하여 내 주십시오. 이후도 "소학생"을 위하여 작품을 내겠습니다. (송태국 민로 6의 1 채 수기)

▲"소학생"을 그렇게 재미있게 읽으시고 기대하시니 참말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작품은 읽어 보고 잘 되었으면 실려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쉬지 않고 여러분의 등불로서 일 하겠으니 많이 작품을 보내 주십시오. (기자)

▲여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

런데 선생님 미안하지만 잊혀지식, 역사, 지리 같은 것을 좀 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때 때 걸하겠 습니다. 그리고 "소학생"이 언제 늦게 나오니까? (종로로 6의 1 이 중숙)

▲좋은 말씀입니다. 이후부터 되도록 그러한 기사를 많이 실려겠습니다. "소학생"이 늦게 나오는 것은 인쇄, 기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의가 없거나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

▲기자 선생님 처음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소학생"은 대단히 유익하고 재미 있어 집안식구 다 복을 느끼고 다음지를 기다립니다. 저는 풍요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하나 지어 보내오니 잘 되었으면 넣어 주십시오. 역사 소설 "이순신 장군"은 꼭 재미있었 어요. 이런 역사소설을 많이 넣어 주세요. (매동로 4년 이상기)

▲기자 선생님을 얼마나 모셨하십니까? 2월치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럼 3월치를 손 잡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요를 하나 보냈습니다. (무학국립로 6년 임 창섭)

▲여러 분들이 "소학생"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모양이 눈 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풍요는 잘 썼으면 실려 드리겠습니다. 자주자주 지어 보내십시오. (기자)

▲여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2월치 해독자 상라기 문지는 다달이 납니까? (세종 창신로 6의 2 우 정현)

▲다달이 내지는 못하겠 합니다. (기자)

1943年4月1日發行  
소학생 · 畝 90원  
4월치 ★ 제 56호

總發行人 尹石重  
印刷人 主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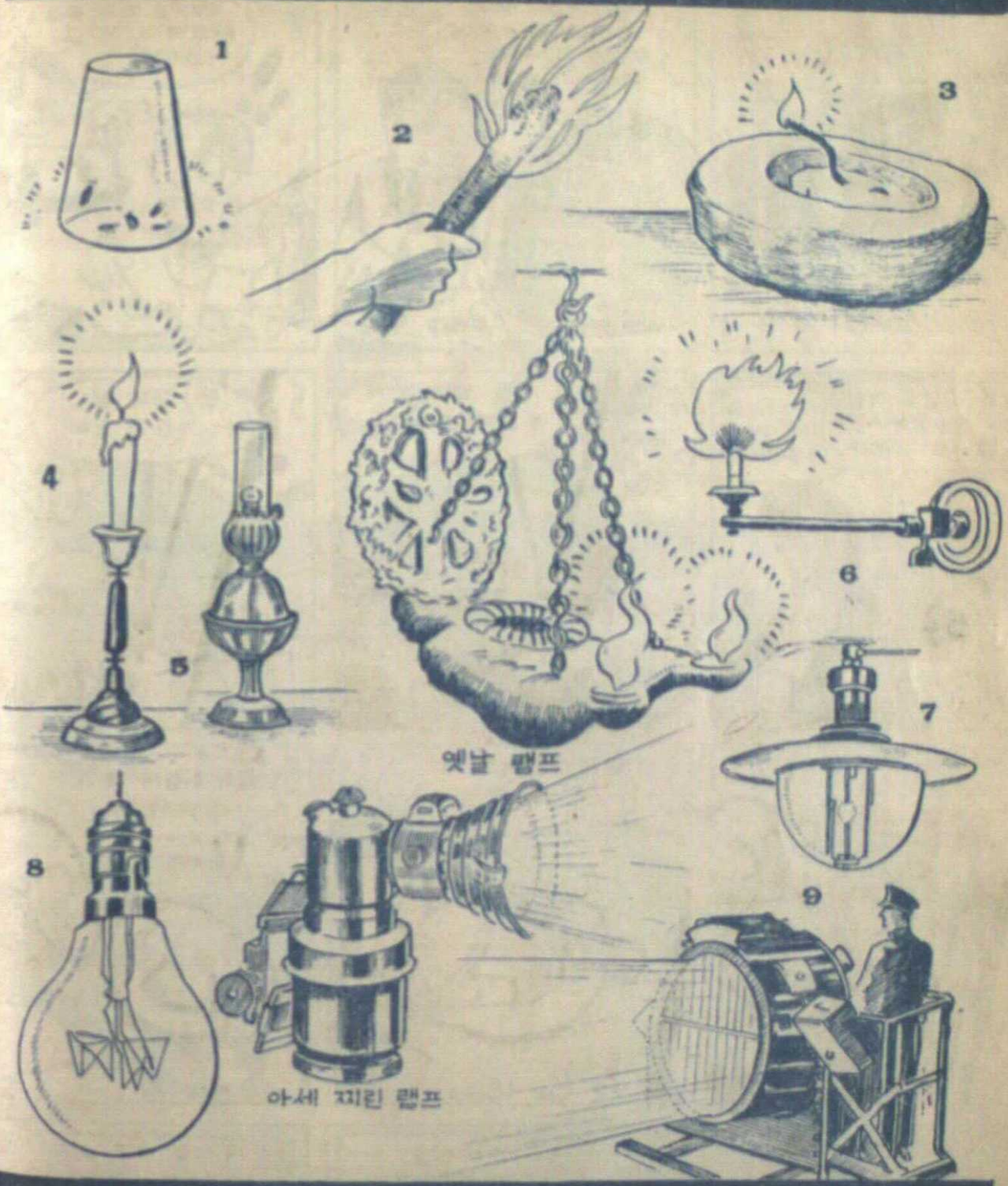
發行所 兪協  
104723 530822 53090

지주소 鍾路 2街 永錄印刷  
電話 光州 38970 號 · 3492 號

總發賣 乙酉 文化社  
賣店 ★ 文章閣 ★ 鍾路 2街

協進印刷公司印刷  
1943.9.12 日 240 2475

★許可番號第106號★許可H字1946年7月5日★第3回郵便物認可日字1946年4月22日★



옛날 램프

아세틸린 램프

등의 내력

① 옛날에는 반딧불의 빛으로 지  
우이불을 만들었으며, ② 반딧불이  
없을 때는 촛불을 썼다 ③ 그 후  
기름을 조개껍질 혹은 콩그릇에  
담아 불을 썼으나 불편이 심해서,  
④ 산포 심지를 만들어 납(蠟)을



⑤ 질러서 쓴 것이 초의 시초다 ⑥  
1783년, 영국사람 아칸드 의사가  
발명한 최초의 램프, ⑦ 14년 후  
에 같은 영국 사람 윌리엄 마야록

프가 가스등(瓦斯燈)을 발명했으  
나, ⑧ 1876년에는 몇 백개의 가스  
등보다도 밝은 전등 아크라이드가  
발명되고, ⑨ 조금 후에 세계적 발  
명가 에디슨이 백열전구(白熱電  
球)를 발명했다. ⑩ 이것이 발달되  
어 지금은 탐조등(探照燈)이라는  
것까지 남게 되었다

